2020

정책연구 2020-22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연구진 배균기 · 박로운

Jeonbuk Institute

think 전북연구원

정책연구 2020-22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연구

think
전북연구원

Jeonbuk
Institute

연 구 진

연구책임	배균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박로운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문위원	신지호 · 전주우리밀영농조합법인 대표
	유재흠 · 부안우리밀영농조합법인 대표
	허헌중 ·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강천식 ·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

연구관리 코드 : 20JU2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 구 개 요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제2장 국내 밀 산업 여건분석 ····· 9

1. 국내외 밀 수급현황 ····· 11
2. 생산 및 유통 현황 ····· 16
3. 법률 및 정책동향 ····· 24
4. 관련 분야 연구동향 ····· 41

제3장 전라북도 밀 산업 현황 ····· 47

1. 생산 및 조직 현황 ····· 49
2. 가공 및 유통 현황 ····· 56
3. 관련 정책 추진현황 ····· 64

제4장 밀 관련 활성화 사례 ····· 69

1. 로컬푸드 · 창업지원 ····· 72
2. 농식품 가공 및 유통 ····· 79
3. 지역특화산업 육성 ····· 87
4. 주요 시사점 ····· 91

제5장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 95

1. 밀 산업의 특징 ····· 97
2. 전북의 현황진단 ····· 101
3. 대응방향 ····· 104
4. 정책과제 ····· 109
   1) 고품질 생산역량 강화 [생산·품질] ····· 109
   2) 지역 식품가공 활성화 [가공·상품화] ····· 112
   3) 안정적 유통기반 확대 [유통·급식] ····· 116
   4) 소비영역 다각화 촉진 [교류·마케팅] ····· 120
   5) 지역협력 체계 구축 [거버넌스] ····· 123

제6장 요약 및 제언 ····· 127

1. 연구 요약 ····· 129
2. 정책 제언 ····· 135

참고문헌 ····· 137

표 목 차 | Contents

〈표 2-1〉 최근 10년 국제 밀 수급동향 ····· 11
〈표 2-2〉 국내 밀 수급현황(사료용 포함) ····· 14
〈표 2-3〉 국내 밀 수급현황(사료용 제외) ····· 14
〈표 2-4〉 국내 식용밀 수입현황 ····· 15
〈표 2-5〉 국산밀과 수입밀 가격비교 ····· 15
〈표 2-6〉 밀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2015~2019) ····· 17
〈표 2-7〉 국산밀 생산·수매 현황(2015/16년 기준) ····· 19
〈표 2-8〉 전국 국산밀 주요 수매·유통업체 현황 ····· 20
〈표 2-9〉 밀 소비량 변동 추이 ····· 20
〈표 2-10〉 전국 국산밀 주요 수매·유통업체 현황 ····· 21
〈표 2-11〉 국산 밀 식품 종류별·성질별 만족도 ····· 22
〈표 2-12〉 밀 산업 육성법 주요 내용 ····· 24
〈표 2-13〉 밀 산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26
〈표 2-14〉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국산 밀 생산 관련 목표' ····· 30
〈표 2-15〉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육성사업 ····· 35
〈표 2-16〉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보리·밀 생산단지 시범사업 ····· 36
〈표 2-17〉 밀 용도별 맞춤형 생산 및 블렌딩 단지 조성 시범 ····· 36
〈표 2-18〉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 시범사업 ····· 37
〈표 2-19〉 기능성 밀 원맥 생산단지 조성 시범 ····· 37
〈표 2-20〉 건강·기능성 고품질 통곡가루 생산체계 구축 시범사업 ····· 38
〈표 2-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우리밀 생산 지원 현황(2016년 기준) ····· 39
〈표 2-22〉 충청남도 우리밀 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9-2023) 주요내용 ····· 40
〈표 2-23〉 국내 밀 산업 관련 연구동향 ····· 41
〈표 2-24〉 국내 육성 주요 밀 품종 현황 ····· 44

〈표 3-1〉 전라북도 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 49
〈표 3-2〉 전라북도 10a당 밀 생산량(2000~2019년) ····· 50

〈표 3-3〉 전라북도 시군별 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2018-2019년) ····· 51
〈표 3-4〉 전라북도 밀 종자 수요 및 공급 현황(2015~2019년) ····· 52
〈표 3-5〉 전라북도 밀 건조·저장 시설 구축 현황 ····· 53
〈표 3-6〉 전라북도 밀 제분·도정 시설 구축 현황 ····· 53
〈표 3-7〉 전라북도 시·군별 밀 생산조직 현황 ····· 54
〈표 3-8〉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애로사항과 제안사업 ····· 56
〈표 3-9〉 전라북도 식품기업 운영형태 ····· 57
〈표 3-10〉 전라북도 식품기업 가동일수 ····· 57
〈표 3-11〉 전라북도 식품기업 고용현황 ····· 58
〈표 3-12〉 전라북도 식품기업 밀 원재료 구입량 ····· 59
〈표 3-13〉 전라북도 식품기업 밀 원재료 구입액 ····· 60
〈표 3-14〉 전라북도 식품기업 밀 관련 주요 상품 매출현황 ····· 61
〈표 3-15〉 전라북도 식품기업 밀 관련 제품 판매처별 매출액 ····· 62
〈표 3-16〉 전라북도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 63
〈표 3-17〉 전라북도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 64
〈표 3-18〉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 64
〈표 3-19〉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주요사업 현황 ····· 66

〈표 4-1〉 밀 관련 활성화 사례 조사 틀 ····· 71
〈표 4-2〉 밀 관련 활성화 사례 주요 내용 ····· 91

〈표 6-1〉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정책과제 요약 ····· 134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2-1〉 밀 주요 생산국 현황 ····· 12
〈그림 2-2〉 밀 주요 수출국 현황 ····· 12
〈그림 2-3〉 국내 밀 수급현황 ····· 13
〈그림 2-4〉 국가별 식용밀 수입액(2017년) ····· 15
〈그림 2-5〉 국내 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2000~2019년) ····· 16
〈그림 2-6〉 국산 밀 유통 구조 ····· 18
〈그림 2-7〉 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2022) ····· 27
〈그림 2-8〉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0~2025) ····· 29

〈그림 3-1〉 국내 밀 재배면적 추이(2000~2019년) ····· 50
〈그림 3-2〉 전라북도 밀 생산량 추이(2000~2019년) ····· 50
〈그림 3-3〉 전라북도 식품기업 밀 구입현황(2019년) ····· 58
〈그림 3-4〉 전라북도 시군별 식품기업 밀 구입량 현황(2019년) ····· 59
〈그림 3-5〉 전라북도 밀 관련 식품기업 판매처별 매출현황(2019년) ····· 62

〈그림 5-1〉 밀의 가치사슬(본원적 활동) 구조 ····· 97
〈그림 5-2〉 지속가능한 밀 산업의 순환체계 ····· 104
〈그림 5-3〉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 105

1 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연 구 개 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 밀은 제2의 주식으로 불릴 만큼 국민의 식생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0.7%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국산 밀 생산현황은 취약한 산업기반(국내외 가격차 3.0배)으로 인해 과잉재고가 지속됨에 따라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정부는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한 '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12)'을 발표하였음

- 생산과 유통 단계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산 밀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수매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설정

○ 「밀 산업 육성법」이 제정(2019.8.27)됨에 따라 밀 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축사업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품질제고를 위한 가공용 품종 개발 및 재배·유통·가공 관련 연구개발 등 지원근거 마련
- 생산·유통단지 지정과 기반 조성, 공공급식 확대, 실태조사를 통한 5년 단위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포함

○ 2020년에는 국내 밀 자급률 향상(2025년 5% → 2030년 10%)과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제1차 밀 산업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됨에 따라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자급 취약 식량작물 생산 안전망 확충
-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확충, 국산 밀 비축제도 운영, 밀 품질관리제도 도입
-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로 소비 확대, 주력 소비품목 육성, 음식점 밀 원산지표시제 도입

-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확대) 및 안정적 생산 작부체계 구축, 현장 맞춤형 품종 조기 실증·보급, 수요기반 확대 R&D 투자 강화
- (국산 및 산업계 역량 강화) 민·관 참여 소비기반 확대, 국산 및 산업 발전협의체 운영

❍ 한편 전북의 밀 생산규모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발전가능성과 시장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

-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연평균 재배면적은 1,803ha 정도이며, 생산량은 7,140톤 규모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5%, 24.9% 수준
- 지역의 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품질 생산기반의 확충과 조직역량 강화, 지역의 식품가공 활성화, 안정적인 유통기반 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지역협력체계 구축 등 전략적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전라북도의 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관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

- 이에 대응하여 삼락농정위원회 식품산업분과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소비·연구·행정·의회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우리밀TF'를 구성(2020.6)하였으며, 분야별·주체별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는 상황임

2) 연구목적

❍ 전라북도 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밀 산업의 육성 방향과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

❍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유통 분야의 다각화와 소비촉진을 통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제시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 ‘밀 산업’에 대하여 학술적·사회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으며, 이 연구에서는 「밀 산업 육성법(제정 2019.8.27.)」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적 정의와 범위를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함

○ 법률에서 ‘밀 산업’은 밀의 생산~가공~유통~판매로 이어지는 본원적 활동과 종자·건조 및 연구·개발 등 지원활동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밀 재배업·유통업·판매업,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으로 구분
- 관련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밀 종자업, 건조업, 공급·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기술개발업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 내용적 범위는 밀 산업 관련 정책과 사업, 생산·가공·유통·판매 현황 등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설정

○ 공간적 범위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밀을 상대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서남부 평야지대(7개 시·군)를 중심으로 구상

2) 연구내용

▢ 국내 밀 산업 관련 여건분석

○ 정부의 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및 기본계획, 관련 법률 및 제도 등 검토

○ 국내외 수급동향, 국내 생산 및 유통 현황, 관련분야 연구동향 등 여건분석

▢ 전라북도 밀 산업 현황분석

○ 생산 및 조직 현황분석

- 우리밀 재배 및 생산현황, 판매현황, 조직현황 등 조사분석(통계자료·행정자료 등)

○ 가공 및 유통 현황분석

- 밀을 취급하는 지역의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원재료 수급 및 가공 현황, 상품화 및 판매 현황,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

○ 정책추진 현황분석

- 생산, 가공, 유통 등 분야별·시군별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 추진현황 검토

□ 밀 관련 활성화 사례

○ 로컬푸드, 외식창업,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도내외 유형별 활성화 사례조사

○ 개별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로서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정리

□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구상

○ 밀 산업의 특성과 전라북도의 과제 도출

- 전라북도 밀 산업의 특성과 문제점 등 전반적인 여건을 진단
- 지역의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도출
- 밀 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종합논의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밀 산업의 중장기 방향과 전략 구상

○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전략별 육성 방안 마련

- 품질 생산역량 강화 (생산·품질)
- 지역 식품가공 활성화 (가공·상품화)
- 안정적 유통기반 확대 (유통·급식)
- 소비영역 다각화 촉진 (교류·마케팅)
- 지역협력 체계 구축 (거버넌스)

3) 연구방법

□ 정보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

- 밀 산업 관련 제도·법률, 정책자료, 학술연구, 보고서 등 문헌 검토
- 밀 산업 육성 정부정책의 주요내용 정리,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현황분석
-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추진현황 등 분석

❍ 통계분석

- 밀의 생산 및 유통, 수입 및 소비 현황 등 분석(통계자료·행정자료 등)
- 시장현황에 대응한 분야별 대책 및 발전방안 등 구상에 활용

❍ 자료 수집 및 분석

- 전라북도 밀 관련 생산 및 가공·유통 조직의 운영현황 조사 분석

▢ 사례조사 및 분석

❍ 도내외 밀 관련 활성화 사례를 영역별로 접근하여 조사대상을 선정

- 도내 사례의 경우 로컬푸드와 외식창업 관련 유형을 선정하여 조사
- 밀의 농식품 가공 및 유통과 관련하여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조사
-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한 사례 등을 선정하여 조사

❍ 사례조사를 통해 운영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

- 조직의 운영현황, 밀 산업 관련 문제의식, 활성화 대응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

▢ 전문가 활용 자문

❍ 밀 산업 관련 선행연구자 및 전문가 중심의 자문회의 진행

- 정부의 정책동향과 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 전라북도 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단계별 육성 방안 마련

❍ 밀 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과제 도출

- 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분야별 과제도출 및 해결방안 논의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식량산업분과 우리밀TF 운영과 연계 추진

2 장

국내 밀 산업 여건분석

1. 국내외 밀 수급현황
2. 생산 및 유통 현황
3. 법률 및 정책동향
4. 관련 분야 연구동향

제 2 장 국내 밀 산업 여건분석

1. 국내외 밀 수급현황

1) 국제 수급동향

(1) 생산 및 소비 현황[1)]

❍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밀의 생산량과 소비량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USDA(미국 농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21년 기준 전 세계의 밀 생산량은 약 772.4백만톤, 소비량은 약 749.5백만톤, 교역량은 약 190.8백만톤 규모로 전망됨

〈표 2-1〉 최근 10년 국제 밀 수급동향

구 분	'00/'01	'05/'06	'10/'11	'15/'16	'19/'20	'20/'21(p)
재배면적(천ha)	215,346	217,510	217,098	224,007	217,035	222,630
생산량(천톤)	582,633	618,810	650,659	738,218	764,943	772,375
소비량(천톤)	583,916	616,144	653,308	713,240	741,761	749,506
기말재고(천톤)	205,938	153,334	200,809	248,453	300,755	320,450
기말재고율(%)	35.3	24.9	30.7	34.8	40.5	42.8
교역량(천톤)	101,195	117,394	133,040	172,671	191,826	190,791
교역율(%)	17.4	19.0	20.4	23.4	25.1	24.7
단수(톤/ha)	2.71	2.85	3.00	3.30	3.53	3.47

출처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2020.1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2020.12) p.880에서 작성
주 : 기말재고율=기말재고/소비량, 교역율=교역량(수출량)/생산량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2020.12)',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작성

❍ 기말재고율의 경우 30% 초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40% 이상 상승하였으며, 교역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배면적은 222.6백만ha 수준으로 전망되며, 최근 10년간 정체된 상태이나 단위당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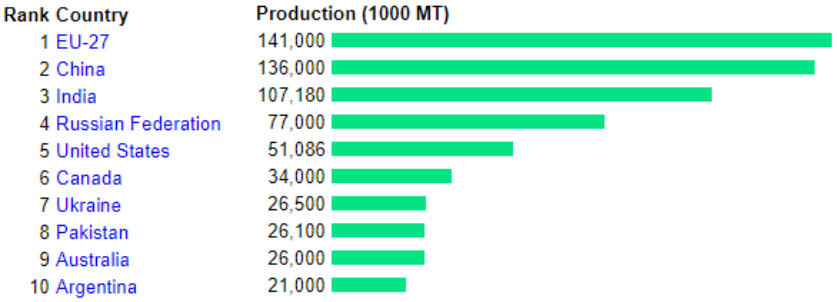
- 생산기술 발달로 2020/21년 기준 ha당 생산량은 10년전 대비 약 1.28배 이상 증가한 3.47톤 수준으로 전망됨

(2) 국가별 생산 및 수출 현황

❍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는 EU(2020년 기준, 약 141백만톤),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순으로 이들 국가에서 66.3%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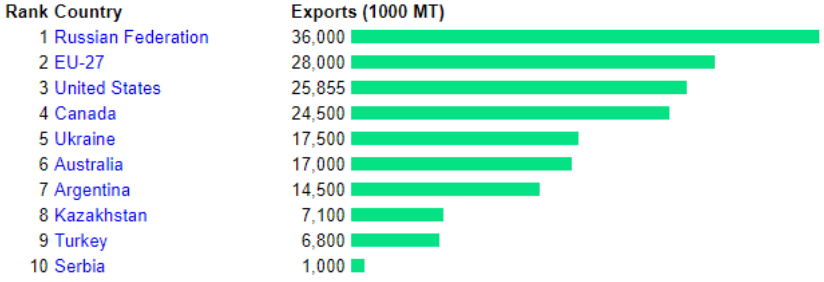
- 주요국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림 2-1〉 밀 주요 생산국 현황



출처 : indexmundi;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2020)

〈그림 2-2〉 밀 주요 수출국 현황



출처 : indexmundi;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2020)

❍ 수출량을 기준으로 러시아(2020년 기준, 약 36백만톤), EU,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순이며, 전체 교역량의 69.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와 호주 등 전통적인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 캐나다 등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의 밀 생산량은 세계에서 65번째(약 25천톤)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수입량은 16번째(약 3,700천톤)로 매우 높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자국의 식량안보를 고려해 주요국의 밀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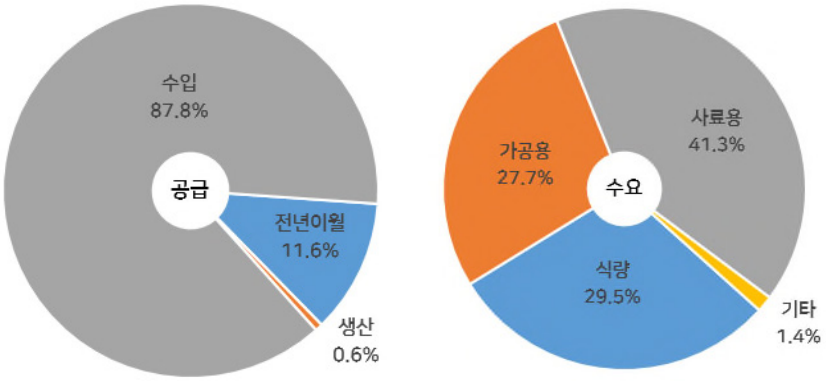
❍ 더불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영향에 따른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부분을 수입물량에 의존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밀의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2) 국내 수급동향

❍ 2018년 기준 국내 밀 수요량은 총 3,697천톤 정도이며, 식용이 2,170천톤(식량 1,092, 가공용 1,025, 기타 53), 사료용이 1,527천톤 규모임

❍ 공급량은 총 4,156천톤으로 수입이 87.8%(3,647천톤)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로 인한 재고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임

〈그림 2-3〉 국내 밀 수급현황



〈표 2-2〉 국내 밀 수급현황(사료용 포함)

(단위 : 천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공급	소계	3,740	3,878	4,816	4,102	4,156
	전년이월	472	464	458	444	482
	생산	2	8	39	27	27
	수입	3,266	3,406	4,319	3,631	3,647
수요	소계	3,279	3,384	4,386	3,647	3,697
	식량	1,363	1,173	1,139	1,136	1,092
	가공용	880	827	1,000	992	1,025
	사료용	1,016	1,259	2,214	1,495	1,527
	기타	20	125	123	24	5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 사료용을 제외한 국내 식용 밀 수요량은 2019년 기준 2,128천톤 규모이며, 수입량은 그보다 많은 2,405천톤으로 정체되어 있는 수준임

❍ 국내 밀 자급률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2019년 현재 0.7% 수준으로 파악되며,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식량작물 가운데 가장 낮은 자급률을 기록

〈표 2-3〉 국내 밀 수급현황(사료용 제외)

(단위 : 천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량	26	38	37	26	15
수입량	2,355	2,258	2,390	2,331	2,405
수요량	2,152	2,156	2,181	2,130	2,128
자급률(%)	1.2	1.8	1.7	1.2	0.7
정부비축(국산)	-	-	-	-	10

출처 : 수입량(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입량 외(농식품부 양정자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재인용

❍ 식용밀 수입액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4억 달러, 235.3만톤 규모로 파악됨

- 2020년 기준 수입량은 250만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액은 6.9억 달러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국내 식용밀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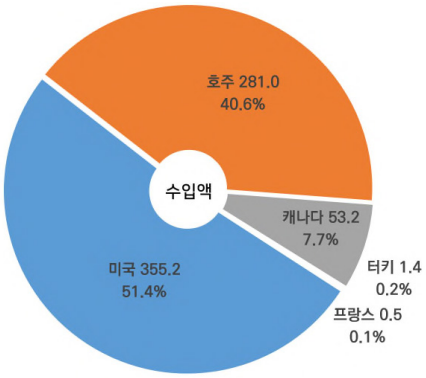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수입량 (만톤)	244	238	221	226	236	226	239	233	240	250	235.3
수입액 (억$)	10.0	8.4	8.5	7.8	7.2	5.8	6.0	6.6	6.7	6.9	7.4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자료

❍ 2020년 기준 국가별 식용밀의 수입액 비중은 미국(51.4%, 355.2백만 달러)이 가장 높고, 호주(40.6%), 캐나다(7.7%), 터키, 프랑스 순으로 미국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한편 국내로 수입되는 밀은 면용 중력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별 특징에 따라 다양한 품종을 블랜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음(정은미 외 2020)

〈그림 2-4〉 국가별 식용밀 수입액(2017년)



단위 : US$ 백만달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1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자료

❍ 국산과 수입산 밀의 거래가격 차이는 2013년 2.1배에서 2017년 3.7배까지 상승해오다 2019년 현재 3.0배 정도에 형성되고 있음

- 국산밀의 거래가격은 2014년 이후 kg당 1,050원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8년부터 975원으로 다시 하락하였으며, 수입밀 거래가격은 2017년 286원까지 지속해서 감소해오다 최근 329원에 형성

〈표 2-5〉 국산밀과 수입밀 가격비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산밀(원/kg)	900	1,050	1,050	1,050	1,050	975	975
수입밀(원/kg)	423	369	347	303	286	314	329
가격차(배)	2.1	2.8	3.0	3.5	3.7	3.1	3.0

자료: (국산) 국산밀 산업협회 수매가격 기준 / (수입)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

2. 생산 및 유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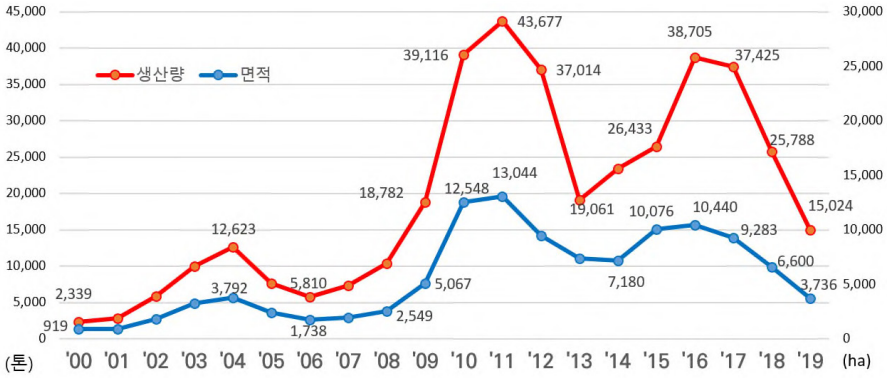
1) 생산현황

❍ 국내 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수급현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폭이 심한 것이 특징이며,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과 상승을 이어오다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급격히 하락하였음

❍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11년에는 13,044ha에서 13,044톤을 생산하였으며, 2019년 현재 3,736ha, 15,024톤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 소비정체와 재고문제(관련 정책 없이 수입에 의존) 해결을 위해 주정용 특별처분(2012년 3만톤, 2017년 1만톤)을 시도하였으나 과잉재고가 지속됨에 따라 2018년부터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감소(농림축산식품부, 2018)

〈그림 2-5〉 국내 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2000~2019년)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각년도

❍ 최근 5년(2015~2019) 동안의 평균 재배면적은 8,027ha로 파악되며, 연간 생산량은 약 28,675톤 규모로 추산됨

❍ 밀의 주산지는 전남(구례·해남·함평·영광·장성), 전북(군산·익산·김제·부안·고창), 경남(사천·합천 등), 광주(남구·광산구) 등임

- 최근 5년 동안 평균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남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재배면적의 43.7%, 생산량의 41.9%를 점유하고 있음

- 이어서 전북(재배면적 22.5%, 생산량 24.9%), 경남(18.8%, 17.5%), 광주(11.1%, 12.3%) 순임

○ 10당 단위 생산량은 약 366kg 정도이며, 기후조건 등으로 다소 등락폭은 있으나 기술발전 등에 의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10당 단위 생산량은 전북과 광주가 전국대비 각각 1.11배, 1.07배로 높은 편이며,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10a당 소득은 평균 162천원 수준으로 작목체계상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마늘·양파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

〈표 2-6〉 밀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2015~2019)

구분	2015년			2019년			최근 5년 평균(2015~2019)					
	면적 (ha)	생산량 (톤)	단수 (kg)	면적 (ha)	생산량 (톤)	단수 (kg)	면적		생산량		단수	
							(ha)	(%)	(톤)	(%)	(kg)	배율
전국	10,076	26,433	262	3,736	15,024	402	8,027	100.0	28,675	100.0	366	1.00
전남	4,057	9,818	242	1,814	7,055	389	3,506	43.7	12,009	41.9	349	0.95
전북	2,265	6,501	287	863	3,805	441	1,803	22.5	7,140	24.9	405	1.11
경남	2,166	5,047	233	774	3,159	408	1,507	18.8	5,025	17.5	349	0.96
광주	1,307	4,392	336	153	534	350	894	11.1	3,525	12.3	392	1.07
충남	185	463	250	33	102	310	139	1.7	394	1.4	283	0.77
경북	55	138	251	80	296	370	138	1.7	465	1.6	328	0.90

단수: 10당 생산량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각년도

2) 유통현황

○ 국내 밀 산업은 생산·구매 부문에서 주요 5개 사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산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곡을 확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정은미 외, 2020)

- 전국범위의 수요업체(한국우리밀농협, ㈜우리밀, iCOOP생협, ㈜밀다원)와 전남 구례를 중심으로 한 광의면특품사업단(구례우리밀)이 시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생산자조직과 협력을 통해 생산부문을 관리하고 있음
- 사업범위는 계약재배·구매·저장·제분·가공·판매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관여하

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국산 밀 100%를 이용한 친환경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수매업체도 존재하며, 주로 소형 제분공장, 제면·제빵·제과 관련 가공사업소 운영 및 특정한 시장을 목표로 운영하거나 대규모 업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체도 다수 존재(권승구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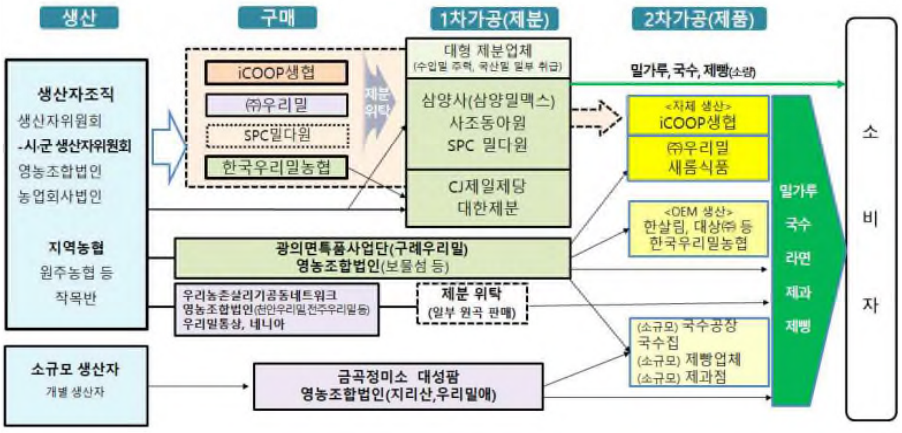
○ 1차 가공(제분)과정에서 대기업 제분회사에 위탁하는 전국범위의 수요업체 4곳과 소규모 제분시설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구례우리밀가공공장으로 구분됨(정은미 외, 2020)

-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도 (대형)제분회사나 구례우리밀가공공장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제분하여 판매하거나 자체 제분소를 활용하는 유형이 있음
- 대기업(SPC밀다원·삼양사·사조동아원·제일제당·대한제분 등)은 주로 수요업체로부터 위탁하여 제분을 대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1차 가공(제분) 제품(밀가루)을 직접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한 2차 가공(제품)을 통해 면류·제빵·제과 등으로 상품화하여 최종 판매하는 구조임

- 대표적으로 iCOOP생협, ㈜우리밀, 새롬식품(라면) 등이 있으며, OEM 방식을 통해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체도 다양하게 존재

〈그림 2-6〉 국산 밀 유통 구조



출처: 정은미 외(2020) 재인용

○ 국산 밀을 취급하는 주요 수요업체의 수매물량은 2016년 기준 32,000톤

정도이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약 82.7%에 해당함

- 당시 국산밀산업협회 회원사의 비중이 84.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매 품종별로는 백중이 47.5%로 가장 많고, 이어서 금강(28.6%), 조경(16.3%) 순으로 나타남

〈표 2-7〉 국산밀 생산·수매 현황(2015/16년 기준)

(단위 : 톤)

구분	수매업체	계약량	수매량	수매 품종				
				백중	금강	조경	수안	기타
국산밀산업협회 회원사	한국우리밀농협	10,000	9,116	6,072	1,823	-	765	456
	㈜우리밀	8,500	6,426	1,777	1,692	2,595	110	252
	iCOOP생협	5,800	4,672	2,441	1,296	935	-	-
	㈜밀다원	5,124	3,848	1,630	1,616	602	-	-
	구례우리밀	2,200	2,450	948	826	282	-	394
	천안우리밀	600	600	-	500	-	-	100
	소계(A)	32,224	27,112	12,868	7,753	4,414	875	1,202
	품종 비중	-	100.0%	47.5%	28.6%	16.3%	3.2%	4.4%
	수매량 비중	-	84.7%	-	-	-	-	-
비회원사		-	4,888	국립종자원 900, 전주우리밀 850, 주금곡정미소 200, 예천 외 100, 기타 2,838				
	수매량 비중	-	15.3%					
합계		32,224	32,000					

주: 현재 구례우리밀영농조합법인과 천안밀영농조합법인은 회원사를 탈퇴, 전주우리밀은 회원사로 가입한 상태

자료: 국산밀 산업협회 내부자료, 권승구 외(2016)에서 재작성

❍ 전국 국산밀 주요 수매 및 유통 업체의 대부분이 국산밀산업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생산자단체 28개소(전북 7, 전남 13, 경남 5, 기타 3)가 활동 중임

- 전북지역은 부안·군산우리밀영농법인, 익산보석우리밀영농조합, 정읍귀리명품화사업단, 고창우리밀생산자위원회, 전주우리밀생산자영농법인, 김제참조은밀협동조합 등이 소속되어 있음

❍ 주요 판매처는 인터넷 쇼핑몰, 생협, 학교급식, 마트, 제분협회 등으로 파악되며, 지역과 업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급식 분야나 특정 가공업체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표 2-8〉 전국 국산밀 주요 수매·유통업체 현황

지역	업체명	주요 판매처	비고
서울	㈜우리밀	인터넷 쇼핑몰, 생협,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국산밀 산업협회
경기	iCOOP생협	인터넷 쇼핑몰, 조합원판매, 마트, '18년 군납시범	국산밀 산업협회
세종	SPC밀다원	자체 소진(파리바게트 등)	국산밀 산업협회
인천	㈜새롬식품	인터넷 쇼핑몰, 두레생협 등 OEM 제품제작	국산밀 산업협회
서울	㈜우리농촌네트워크	인터넷 쇼핑몰, '18년 군납시범	국산밀 산업협회
경기	㈜우리밀급식	초중고 급식납품	국산밀 산업협회
광주	㈜우리밀식품	인터넷 쇼핑몰, 급식, 국수프렌차이즈 운영	국산밀 산업협회
	한국우리밀농협	인터넷 쇼핑몰, 제분협회	국산밀 산업협회
경기	초록나무	급식, 인터넷 쇼핑몰	국산밀 산업협회
충남	천안밀영농조합	호두과자	국산밀 산업협회
광주	한국밀협회	제분협회 공급	2,000~2,500톤
전남	남도그린	오뚜기(광주지점 납품)	6,700톤
충남	우리밀·콩생산자연합회	국수마을, 학교급식, 제분협회	750톤
기타	지역농협	자체판매(통밀가루), 주정(전통주 등)	1,000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2022)

3) 소비현황

(1) 연간 소비량 및 식품원료 소비실태

○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약 32.4kg 정도로 2013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1.2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밀 소비량 변동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간 밀 수요량(만톤)	225	208	211	215	216	218
1인당 연간 밀 소비량(kg)	32.9	31.3	31.7	32.2	32.1	32.4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량(kg)	1.3	1.3	1.2	1.2	1.2	1.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 2017년 실시한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결과 밀(국산·수입산)의 용도별 수요는 면류가 25.4%로 가장 많고, 빵류(19.0%), 과자류(15.7%) 순이었음(농림축산식품부, 2018)

- 국산 밀의 경우 주로 면류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용률은 4.6%에 불과한 수준이며, 수입산과 비교해 가격이 비싸고, 가공적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임
-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친환경급식, 전문음식점, 소비자협동조합, 가정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 2-10〉 전국 국산밀 주요 수매·유통업체 현황

구분		사용량 (톤)	품목별 비중(%)	국산 사용량	국산 비중(%)
면류	라면	134,173	10.1	14,782	11.0
	국수	131,486	9.9	21	0.02
	기타면류	72,680	5.5	723	1.0
	소계	338,339	25.4	15,526	4.6
과자류		209,193	15.7	1,660	0.8
빵류		252,868	19.0	992	0.4
밀가루/분말류		42,398	3.2	233	0.5
기타		486,998	36.6	957	0.2
총계		1,329,796	100.0	19,368	1.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출처: '17년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표본업체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총수요와 차이 존재)

○ 밀가루·국수·제빵·제과 등 밀로 가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지만 유통망의 한계와 소비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음

(2) 국산 밀에 대한 소비자 인식[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은미 외, 2020)에서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3)] 결과에 의하면 국산 밀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2) 정은미 외(2020), 지역재단(2011)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3) 전문리서치업체를 통해 전국 소비자 패널 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 조사기간 (2020.7.13.~7.17)

가격, 구매의 접근성, 제품의 다양성 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국산 밀 소비는 농가소득에 도움(77.3점)이 되고, 안전하다(75.1)는 의견이 높았으나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62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가격이 비싸도 구매의향이 있다는 응답의 경우 67.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국산 밀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곳은 일반 대형마트 비중이 큰 반면에 빵류의 경우 대부분 프렌차이즈 업체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

❍ 국산 밀 식품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가격과 건강, 안전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제품 구매 시 우선 확인하는 요소는 가격(28.0%), 안전성(22.6%), 유통기한(20.2%), 맛(17.7%) 순으로 나타남
- 구매이유는 건강을 위해(37.0%), 맛이 좋아서(25.5%), 안전성이 높아서(19.3%) 순으로 나타남
- 구입 및 취식에서 불편한 점은 가격이 비싸다(38.9%),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18.6%)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

❍ 국산 밀 상품의 종류별·성질별 만족도는 가격과 다양성, 접근성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어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할 요인으로 판단됨

- 안전성(73.5%), 영양(71.6%), 맛(67.7%), 가족의 선호(67.3%)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가격(56.9%)과 품목의 다양성(60.4%), 접근성(62.5%)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표 2-11〉 국산 밀 식품 종류별·성질별 만족도

구 분	가격	맛	안전성	영양	접근성	품목 다양성	가족의 선호
빵 류	56.7	68.3	74.8	73.2	61.4	59.0	68.1
과자류	55.4	66.3	73.3	71.4	63.2	60.3	65.9
면 류	59.0	67.7	73.5	71.2	63.6	61.3	67.7
밀가루	56.6	68.4	72.3	70.7	61.9	60.9	67.5
평 균	56.9	67.7	73.5	71.6	62.5	60.4	67.3

주: 100점 만점임
출처: 정은미 외(2020),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재인용

❍ 국산 밀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47.2%), 어떤 제품이 있는지 몰라서(21.0%), 구입처를 찾기 어려워서(14.7%) 순으로 나타남

❍ 국산 밀 자급률 확대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은 7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밀과 혼합제분에 대한 의견은 최소 국산 밀 50% 이상 혼합(40.1%), 10~20% 혼합(28.4%), 국산 밀만 사용(20.4%) 순으로 응답하였음

❍ 소비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가격인하가 47.0%로 매우 높았으며, 이어서 상품품목 확대(11.3%), 품질개선(9.7%), 인증제도와 신뢰성 제고(8.9%) 순이었음

❍ 이상의 조사결과는 지역재단(2011)의 연구에서 실시한 소비자 의식조사[4]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소비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국산 밀 제품의 구입 동기로 수입밀보다 안전할 것 같아서(50.9%), 국산원료 사용(30.4%), 영양·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16.1%) 순으로 응답
- 국산 밀 제품의 단점으로는 제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24.7%), 수입밀 제품보다 비싸서(19.1%), 외식점이 없어서(17.9%) 순으로 나타남
- 국산 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건강 기여도(75.8%), 안전성(73.3%), 품질(69.7%) 측면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수입밀 제품 대비 국산 밀 제품의 적정 가격 수준으로 약 1.3배가 36.8%로 가장 높고, 가능한 비슷해야한다(31.1%), 약 1.5배(26.7%) 순으로 나타남
- 자급률 증대 방안(1순위)으로는 소비자 홍보·교육을 통한 소비의욕 증진(31.9%), 학교·군 급식 등 제품 사용 의무화(26.8%),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농민지원정책(24.5%) 순이었음
- 소비촉진 방안(1순위)으로는 수입밀 제품과의 가격차이 축소(36.6%), 안전성 확보(21.3%), 홍보·마케팅(13.1%), 품질 신뢰도 제고(11.7%), 판매처 확대와 다양화(7.9%) 순으로 응답함

4) 서울·경기 지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용 소비자 596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 조사기간(2010.12.18.~12.24)

3. 법률 및 정책동향

1) 관련 법률 및 제도

(1) 밀 산업 육성법 제정

❍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2019년 8월 「밀 산업 육성법(시행 2020.2.28.)」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법률제정으로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의 비축사업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계획적 접근을 통한 정책추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품질기준에 따른 수매와 비축, 가공업체에 원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5년 주기)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

❍ 국산밀 품질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이 가능해져 공공급식 등 수요처 확대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밀의 재배·유통·가공·기술 및 고품질 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 생산·유통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가능

-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산밀 가공품의 우선구매 요청으로 공공급식 확대 기반을 마련

〈표 2-12〉 밀 산업 육성법 주요 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제5조 (기본계획 수립)	○ '밀 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5년 주기) - 밀 산업의 현황과 전망 - 밀 산업 육성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자급률 향상과 생산·수급 조절 -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밀·밀가루·밀가공품 품질 향상 - 유통구조 개선, 소비 촉진 등
제6조 (실태조사)	○ 밀 산업 육성, 수급·가격 안정 시책의 수립·시행 목적(정기조사 5년) -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현황 - 가공·유통·판매 현황 - 가공품 제조·유통·판매 현황 -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제7조 (연구·기술개발)	○ 밀 산업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 품종, 재배기술, 시설·장비, 수확 후 관리, 가공품 개발, 품질 향상, 식생활 개선 및 교육

구분	주 요 내 용
제8조 (교육훈련)	○ 산업종사자, 소비자, 관계 공무원 대상 실시 ○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위탁 지원
제9조 (국제협력)	○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정보교류
제10조 (밀 산업 육성 지원)	○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 유통기반 조성(건조·저장·가공시설 등) ○ 생산기반 조성 ○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 토종종자 복원과 계승·발전 ○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 홍보
제11조 (계약재배)	○ 밀 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 장려(사업비 우선지원)
제12조 (생산·유통단지)	○ 생산·유통단지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3조 (유통·가공시설 지원)	○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유통·가공시설 설치·운영 지원
제14조 (품질관리)	○ 품질기준과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
제15조 (단체설립)	○ 밀 산업종사자의 단체(사단법인) 설립 가능
제16조 (비축사업 운영)	○ 밀 비축 가능, 품질기준 적용 수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우선구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에서 우선 구매요청 가능

(2) 조례 제정 현황

❍ 밀 산업 육성 관련 조례는 전국 5개 시·도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통적으로 계획 수립·시행, 예산·기술 지원, 기관·단체 지원, 소비촉진, 위원회(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광주광역시가 2009년 최초로 신설하였으며, 중장기 계획, 기술 및 생산비 지원, 소비의 촉진, 위원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음

❍ 경기도는 유일하게 밀 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협의회 등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전라북도는 밀과 콩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지원, 협의회 구성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단체급식시설 등의 사용을 장려하는 우선구매, 소비촉진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표 2-13〉 밀 산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 례 명	신설일자	주 요 내 용
광주 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2009년 08.17	○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 생산비 지원 ○ 기술지원(종자개량·재배기법 등) ○ 위원회 구성·운영 ○ 소비 촉진(공공기관·학교·기업 등 단체급식 사용 확대)
전라 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2010년 02.12	○ 시책 수립·추진(생산장려·소비촉진 등) ○ 기술지원(종자개량·재배기법 등) ○ 보조금 및 생산자단체 지원 ○ 소비 촉진(공공기관·학교·기업 등 단체급식 사용 확대) ○ 협의회 구성·운영
충청 남도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09.20	○ 기본계획(5년 주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관련 사업 추진 및 기관·단체 경비 지원 ○ 소비 촉진(우리밀 사용, 소비 촉진 권장) ○ 위원회 구성·운영
전라 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2020년 02.28	○ 중장기계획 수립 ○ 관련 사업 지원 및 생산단체 지원 ○ 협의회 구성(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식량분과에서 밀·콩사업 관련 심의·자문, 필요시 우리밀 또는 우리콩 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
경기도	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05.19	○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실시 ○ 소비확대(공공기관·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사용 확대, 우선구매 요청)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 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5)]

(1) 배경 및 개요

❍ 최근 국내 밀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9년 기준 자급률은 0.8%로 2016년 1.8%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진 실정임

5) 농림축산식품부 '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2022)'에서 작성

❍ 국내 취약한 소비기반으로 인해 과잉재고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밀의 자급기반을 확장해가기 위한 체계적인 밀 산업 육성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역별 밀 수매비축량은 전북(4,465t), 전남(2,414t), 경남(1,811t), 충남(814t), 광주(576t), 경북(121t)으로 나타남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2022)'을 수립하고,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등을 제시

❍ 단기적으로 생산·유통 단계의 품질 향상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산밀 홍보 강화와 가정용·제빵용 등 수요처 확대 전략을 마련함

❍ 생산단계 품질제고, 유통단계 품질제고, 수요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주요 영역별 중점과제를 설정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식량안보 차원에서 밀 자급기반 확충을 목표로 자급률을 2018년 1.7%에서 2022년 9.9%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그림 2-7〉 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2022)

목표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한 밀 자급률 제고

추진 전략

■ [단기] 생산·유통단계의 국산밀 품질 향상 및 밀 산업 육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단지 중심 품종통일 - 재배관리 표준화 - 수확 후 관리체계 확립

■ [중장기] 국산밀 품질 향상을 기반으로 국산밀 홍보 강화, 면용 이외 가정용·제빵용 등 수요처 확대 추진
- 품종개발·보급 - 생산·유통 품질관리 체계화 - 수매비축 - 대량수요처 확대

중점 과제

생산단계 품질 제고	유통단계 품질 제고	수요기반 확대	제도 개선
○고품질 품종 개발 - 경밀질 품종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생산·유통 품질 관리 체계화 ○지역단위 생산-유통모델	○체계적인 품질 관리 - 품질등급제 신설 - 품질분석 ○수확 후 관리 시스템 개선	○인지도 제고 - 의무자조금 - 국산밀음식점인증제 ○R&D 등 시장 차별화 - 안전성, 건강기능성 ○공공급식 확대	○수급안정제도 도입 - 수매비축제 도입 - 주정용 사용 확대 ○재해보험 확대 ○밀 산업육성법 제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2022)

(2) 중점과제 주요 내용

○ (생산단계 품질 제고) 고품질 품종 개발,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생산·유통 품질관리 체계화, 지역단위 생산-유통 모델 확산

- 우수한 해외 품종 선발·보급, 고품질 품종 개발 및 전통품종 육성·활용
- 보급종 선정 및 공급방식을 생산자(농가) 중심에서 수요자(가공업체) 참여방식으로 개선
- 쌀 생산농가 중심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밭식량작물(콩·감자)까지 전면 확대
- 지역단위 종합계획·협의체 구성·운영 및 밀 생산-가공·유통-소비 모델 확산

○ (유통단계 품질 제고) 품질등급제 도입 등을 통한 품질·용도별 구분 수매·저장·유통 시스템 마련, 수확 후 관리시스템 개선

- 가공용도별 품질특성을 반영한 밀 품질등급 규격 신설 및 품질분석기 보급 확대
- 밀 전문단지 중심으로 건조·저장시설 지원, 수확 후 관리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 (수요기반 확대) 밀 의무자조금 및 국산밀음식점 인증제 추진, 농협·aT 등을 통한 판로 확대, R&D 등 시장 차별화, 공공급식 확대

- 밀 의무자조금 전환, 국산밀음식점 인증제 도입(생산자단체), 대·중소기업 협력 및 농협과 aT의 연계를 통한 판로 확대
- 다양한 건강·기능성 제품을 위한 R&D 확대 및 수입밀 안전성 관리 강화
- 밀쌀 군납 및 학교 시범급식 확대, 공공기관 로컬푸드 이용 등 대량수요처 확대

○ (제도 개선) 밀 정부수매제 도입 등 수급안정 제도 마련, 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밀 산업 육성법 제정, 밀 산업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 고품질 밀 생산유도를 위한 수매비축제 도입 및 주정용 밀 확대
- 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지역을 단계적 확대
- 밀 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지원, 밀 산업육성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관계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밀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3)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6)]

○ 「밀 산업 육성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자 2018년 발표한 '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 들어 '제1차 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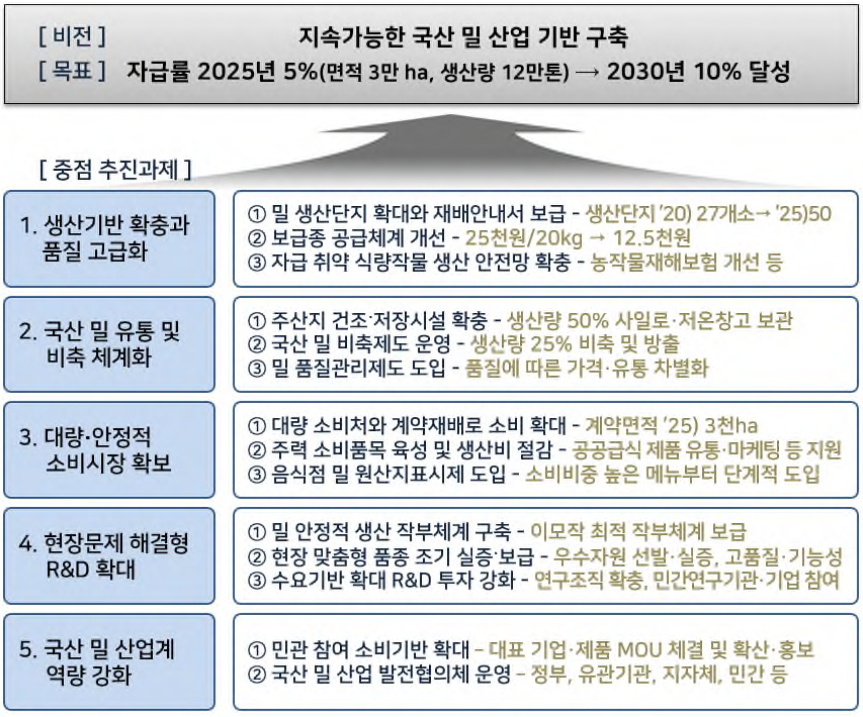
6)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 관련 보도자료(2020.11.19)에서 작성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

❍ 상대적으로 낙후된 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소비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 구축'하는 비전을 제시

- (생산) 소규모로 분산된 생산구조를 개선하여 단지 중심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
- (유통) 소량의 분산적인 유통 체계를 대량의 통합적인 유통체계로 전환
- (가공) 국산과 수입 밀을 구분해오던 방식에서 연계 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 (소비) 다품목에 의한 소량의 소비구조를 주력품목과 대량소비 체계로 개선

〈그림 2-8〉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0~2025)



❍ 2030년까지 밀 자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계획기간 내 5%(재배면적 3만ha, 생산량 12만톤)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4개 중점과제를 제시

-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별도 수립·추진할 예정

〈표 2-14〉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국산 밀 생산 관련 목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재배 면적 (ha)	합계(ha)	5,224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자급률(%)	1.0	1.7	2.5	3.3	4.2	5.0
	생산단지(ha)	2,834	5,000	7,000	10,000	12,000	15,000
	개소수(누계)	27	32	38	42	46	50
	생산량(천톤)	10	20	28	40	48	60
	보리 전환(ha)	-	3,000	5,000	6,000	8,000	9,000
	기타(ha)	2,390	2,000	3,000	4,000	5,000	6,000
전체 생산량(천톤)		21	40	60	80	100	120
보급종 공급물량(톤)		-	1,330	1,900	2,280	2,850	3,230
국산 밀 비축 계획(천톤)		3	10	14	20	24	30
건조·저장시설 신축(개소)		-	2	-	2	-	-
계약재배 면적(ha)		-	1,000	1,500	2,000	2,500	3,000

자료: 농림축사식품부,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
주1 : 생산량 단수 적용(2020년 기준 400kg/10a),
주2 : 보급종 - (평균 파종량) 190kg/ha, (평균 단가) 25천원/20kg, (연도별 물량·예산안) 익년도 생산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파종 수요량 산정

(1)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① 밀 생산단지 확대와 재배안내서 보급

❍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30천ha로 확대하고, 생산단지 50개소(15천ha)를 조성하여 국내 자급률과 품질 고급화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 (컨설팅) 생산단지별 최적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컨설팅을 품질관리가 포함된 심층컨설팅(단지별 최대 5천만원 상향 조정)으로 전환

- 생산·재배기술, 토양·시비 분석, 밀 품질 평가, 수확 후 관리기술 등 확대 지원

❍ (재배안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되고 체계적 재배관리가 가능하도록 단지별 특징을 반영한 재배안내서 제작·보급

②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 (공급대상) 종자순도를 높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급종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생산단지에 50% 할인 공급

○ (공급확대) 보급종의 순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품종검정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법을 개발·보급

③ 자급 취약 식량작물 생산 안전망 확충

○ (우대지원) 식량 소비비중은 높지만 자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하여 논 활용직불금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대 적용

○ (재해보험 개선)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기간 통일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경영·소득 안전망 강화

(2)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① 국산 밀 건조·저장 시설 확충

○ (건조·저장) 밀 생산량의 50%는 유통의 규모화·효율화, 품질관리를 위해 사일로·저온저장고 등을 구비한 지역 거점시설을 통해 보관·유통

- 생산량/저장여력 불균형지역 건조·저장시설 신축(4개소), 기존 시설 개보수 지원
- 2025년 생산량(120천톤) = 거점시설(53~60) + 정부비축(30) + 조기소진(30~37)

○ (기계·장비) 지역 거점시설에서 생산·유통을 전담하고, 파종·수확 등에 품종·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기계·장비(파종기·범용콤바인 등) 지원

② 국산 밀 비축제도 운영

○ (비축규모)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2025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25% 수준을 비축, 재배면적 확대와 친환경인증 밀의 차별화된 시장 구축 견인

○ (방출방식) 품질과 생산연도에 따라 방출 가격을 차별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체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방출계획을 수립·시행

③ 밀 품질관리제도 도입

○ (품질평가) 원곡의 가공적성을 평가하는 ‘밀 품질관리제도’를 도입,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소비 활성화를 유도

○ (가격 차별화) 생산농가의 품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정부 비축 매입단가를 차등 지급

(3)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① 대량 소비처와 계약재배로 소비 확대

○ (계약재배) 생산-소비 연계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재배농가와 실수요업체 간 계약재배자금을 무이자 융자·지원(친환경인증 농가 계약업체 우선 지원)

○ (확대방안) 계약재배 물량은 2025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10%(12천톤)까지 확대하고, 사업실적 우수 업체에 사업물량 우대 배정

② 주력 소비품목 육성

○ (소비확대) 국산 밀 품질 수준, 소비 확대, 수입 밀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력 소비품목을 다양화하고, 대량소비처를 통해 공급

○ (공공급식) 공공급식 사용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산 밀 사용·함유 제품에 대하여 품질·제분비율·사용실적 등에 따라 제분비용 등 차등 지원

③ 음식점 및 원산지표시제 도입

○ (원산지표시제) 음식점 및 메뉴 중 국내 소비량이 많고, 수입 밀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메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국산 밀 대중화를 추진

○ (대상 품목·업체) 공공급식 분야와 연질밀 사용 메뉴부터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

(4)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확대

① 밀 안정적 생산 작부체계 구축

○ (기술 개발) 안정적인 생육·수확 기간 확보를 위해 고품질 밀 생산 중심의 밀-벼, 밀-콩 등 이모작 재배기술 및 벼·밭작물 품종 개발

○ (보급 확산) 생산단지와 연계하여 최적의 작부체계를 실증하고,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통해 실효성·경제성을 정밀 검증하여 교육·홍보를 통해 확산

② 현장 맞춤형 품종 조기 실증·보급

○ (품종보급) 국산 밀 생산자·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기능성 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부가가치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

○ (차별화)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지역적응성·제빵특성 등)를 통해 우수 품종을 선발, 생산단지 현장 실증을 통해 조기 보급

③ 수요기반 확대 R&D 투자 강화

○ (연구역량) 농촌진흥청 밀연구팀을 2021년부터 과단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품종·재배기술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소비까지 연구범위를 확대

○ (역할분담) 농촌진흥청은 품종 및 재배관리기술 개발, 작부체계 정립 등 연구에 집중하고, 연구성과 및 산업화 기술은 농기평·실용화재단을 통해 보급·확산

(5) 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

① 민·관 참여 소비기반 확대

○ (민·관 참여 소비기반) 민간기업·지자체의 수요 창출 노력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민·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소비 확대를 견인

- '착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상생 모델 발굴·확산,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산 밀 제품의 공공·단체급식 사용 확대 유도

○ (국산밀발전협의체) 생산자, 제분·가공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칭) 국산밀산업발전협의체'를 구축·운영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7)]

-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에서 밀 산업은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 과제영역에 포함되어 자급률 향상에 초점을 맞춰 세부계획이 수립되었음
- ❍ 과거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식량자급률을 평가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해옴
  - ('16년) 식량자급률 50.9% / 곡물자급률 23.8% → ('22년) 55.4% / 27.3%
- ❍ 그러나 쌀과 다르게 밀·보리·콩의 경우 농작물의 생산 부진과 가격경쟁력 하락 등의 영향으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
- ❍ 밀·보리 등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모작 직불금, 계약재배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생산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2022년의 밀 자급률 목표치를 15%에서 9.9%로 재조정하여 5년 단위로 수급상황과 재배면적 등을 감안한 목표치를 설정
-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과 국산밀 자조금 의무화를 통한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 판로 확대와 정부수매 수입량(TRQ 증량) 조정 등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
  - 맥류 공동경영체 육성 계획(누계) : ('16년) 2개소 → ('17년) 6개소 → ('22년) 16개소

5) 밀 산업 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

(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① 국산 통밀 학교급식 확대[8)]

- ❍ 국산 밀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서울·경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국산 통밀 학교급식'을 11개 시·도로 확대하여 시행
  - 2018년 서울·경기 지역의 초·중·고 104개교에서 1,550kg을 사용하였고, 2019년에는 전국 11개(충북, 전남, 전북,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부산, 세종, 울산) 시·도의 초·중·고 126개교에서 3,502kg을 사용

---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에서 작성

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11.1.), '국산 통밀 학교급식 확대 시행'을 참고하여 작성

❍ 2018년 통밀 시범급식을 실시한 서울·경기지역 참여 학교 104개교 중 68개교(서울 15, 경기 53)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밀의 산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 2019년부터 26개교가 참여, 충남은 2018년 11개교에서 2019년 50개교로 증가

❍ 학생과 영양사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편이며, 시범급식 이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사업

❍ 고품질 밀 생산·유통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 대상의 생산단지 규모화·조직화를 지원(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밀을 포함하여 추진)

❍ 교육·컨설팅을 통한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 촉진,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 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논·밭의 이용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 가공·체험·관광사업 연계 등을 중심으로 지원

〈표 2-15〉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육성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대상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들녘경영체
사업내용	◦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논·밭의 이용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사업 연계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장비·시설, 사업다각화 등 지원
지원한도	◦ 교육·컨설팅 지원 : 공동영농면적에 따라 4천만원 이내 ◦ 시설·장비 지원 : 공동영농면적에 따라 4억원 이내 ◦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기간 2년, 10억원 이내
지원조건	◦ 교육·컨설팅 지원 : 경영체 당 3,000만원 지원 ◦ 시설·장비 지원 : 사업기간 1~2년, 2억원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기간 1~3년, 5~50억 내외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③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밀 생산단지 시범사업

○ 밀·보리 수매업체와 계약재배가 가능한 들녘별 쌀 경영체(단지·작목반·법인체 등)를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

○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및 기계화 작업체계 보급, 농자재 및 지원, 수확 후 건조·저장·가공 시설 지원, 브랜드 개발, 교육 및 홍보, 연시회 및 평가회 등 지원

〈표 2-16〉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보리·밀 생산단지 시범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대상	◦ 1개소(40~100ha)
사업규모	◦ 100,000천원(국비 50%, 시군비 50%)
지원대상	◦ 밀·보리 수매업체와 계약재배가 가능한 단지, 작목반, 법인체 등
지원내용	◦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보급,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 브랜드 개발, 교육 및 홍보, 연시회·평가회 등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농촌진흥청 관련 사업[9)]

① 밀 용도별 맞춤형 생산 및 블렌딩 단지 조성 시범(계속)

○ 새로운 고부가가치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용도에 맞는 맞춤형 지역적응 품종 생산단지를 조성, 블렌딩 기술을 활용한 품질이 높은 수익모델을 개발·보급

○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생력 농기계·농자재, 밀 품질 분석기, 원맥 블렌딩 및 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지원

〈표 2-17〉 밀 용도별 맞춤형 생산 및 블렌딩 단지 조성 시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대상	◦ 1개소(밀 재배 주산단지, 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 등)
사업규모	◦ 개소당 50ha, 2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시범요인	◦ 용도별 고품질 밀 생산단지 조성, 원맥
지원내역	◦ 밀 단지 조성에 필요한 생력 농기계·농자재, 밀 품질 분석기, 원맥 블렌딩 및 가공 관련 시설 등(트랙터·콤바인 등 단순지원 농기계 구입 불가)
신청기준	◦ 균일한 원맥 생산을 위한 단지 조성 및 블렌딩, 가공이 가능한 단지
신청지역	◦ 전북 3개소(정읍, 김제, 고창)

9) 농촌진흥청,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안)'을 참고하여 작성

②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 시범사업(신규)

○ 밀 브랜드단지 기반의 품질체계화를 위한 패키지형 체계를 구축하여 가공 용도에 맞는 맞춤형 원맥생산 공급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

○ 용도에 맞는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밀 품질분석기(NIR) 활용을 통해 원맥의 품질·등급별 구분 수매 및 저장관리의 패키지형 시스템을 확충하여 추진

〈표 2-18〉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 시범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대상	◦ 7개소 : 지역별 밀 브랜드단지 참여농가, 밀 수매업체(영농법인 등)
사업규모	◦ 개소당 50㏊이상
사 업 비	◦ 2,100백만원(개소당 3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시범요인	◦ 밀 용도별(품종별) 브랜드단지 조성 및 재배 매뉴얼화 ◦ 밀 품질분석기(NIR) 활용 품질등급별 구분수매·저장 관리
지원범위	◦ 밀 용도별 브랜드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농약, 비료 및 농자재 ◦ 밀 품질분석기(NIR), 원맥 분석용 건조기, 품질등급별 원맥 저장시설 ◦ 신기술·신품종 교육 및 홍보(연시회 및 평가회), 품종비교전시포 운영
신청기준	◦ 밀 품질 기준에 따른 원료곡 매입 저장이 가능한 경영체 선정 운영
신청지역	◦ 충남 1(부여), 전북 4(전주, 김제, 고창, 부안), 전남 2(장흥, 함평), 경남 2 (함안, 합천), 광주 1

③ 기능성 밀 원맥 생산단지 조성 시범(계속)

○ 고부가가치 기능성 밀의 새로운 품종을 조기 보급하고, 원맥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국산 밀 산업 확장을 목적으로 추진

○ 농가생산 단계까지 종자혼입을 방지하여 고품질의 기능성 원맥을 생산하고, 가공업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특색있는 기능성 품종 생산과 가공 원료곡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이 핵심

〈표 2-19〉 기능성 밀 원맥 생산단지 조성 시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대상	◦ 1개소(기능성 밀 생산가능 작목반 또는 농업법인)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규모	◦ 개소당 30ha 이상(지역에 따라 2~3개소 분리 가능)
사 업 비	◦ 개소당 2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시범요인	◦ 고품질 기능성 밀 품종 원맥 생산단지 조성 ◦ 고순도 종자 보급 및 생산을 위한 종자혼입 방지기술 투입 ◦ 기능성 밀 품종 종자 증식포 및 비교 전시포 설치
지원내역	◦ 기능성 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지원 ◦ 종자혼입 방지 및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건조기, 저온창고 등 시설·장비
신청기준	◦ 기능성 밀 품종을 혼종될 우려없이 생산할 수 있고, 규모화·단지화 생산단지 조성이 가능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들녘경영체 등이 참여해야함 * 밀 원맥 별도관리가 가능한 사업대상자 : 수확, 건조, 저장 등
신청지역	◦ 전북 2(고창, 부안), 경북 1(김천), 광주 1

④ 건강·기능성 고품질 통곡가루 생산체계 구축 시범사업(2년 연속사업, 신규)

❍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여 국산 밀·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곡물산업 모델로 핵심 중간재(통곡가루)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

❍ 원료곡 건식제분으로 고품질의 통곡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전문적인 기술 향상을 지원

〈표 2-20〉 건강·기능성 고품질 통곡가루 생산체계 구축 시범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대상	◦ 2개소(밀 + 쌀 생산 단지, 작목반,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하계) 벼 : 가루미 2(아로마티) / (동계) 밀(백강·아리흑)
사업규모	◦ 개소당 10ha내외
사 업 비	◦ 8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2년 연속 지원사업
시범요인	◦ 통곡가루용 고품질 원료곡 전문 생산단지 조성 ◦ 건식제분을 이용한 고품질 통곡가루(유색가루 포함) 생산 ◦ 우리 곡물 통곡가루 활용 차별화 가공품 생산기반 구축
지원내역	◦ 원료곡 단지조성, 제분설비 보강, 통곡가루 가공·유통·저장 시설 등
신청기준	◦ 건식제분시설 보강이 가능하고 통곡가루 소비처 연계가 가능한 지역
신청지역	◦ 충남 1(예산), 전북 2(전주, 부안), 전남 1(고흥)

(3) 지방자치단체 지원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밀 관련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밭농업직불제(지역마다 매칭비율 상이)를 중심으로 대부분 생산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광주·경남·경북·전남의 경우 대부분 시·군에서 생산장려금을 광역 시·도와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의령·구례·장성·해남의 경우 추가지원 사업을 진행
- 부안·정읍·천안의 경우 비료지원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의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순창)에서는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추진

〈표 2-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우리밀 생산 지원 현황(2016년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광주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광역) 생산장려금 29만원/ha	
	◦ 사업비 : 344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대상면적 : 1,185.9ha(717농가) / 지원단가 : 29만원/ha ◦ 지원내용 : 밀 재배 농업인에 대한 생산비(종자대, 비료대) 지원 ◦ 시·군 : 대부분 시 매칭사업으로 지원		
경남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광역) 생산장려금 28.8만원/ha, 자부담 7.2만원/ha	
	◦ 사업비 : 68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대상면적 : 1,890ha / 지원단가 : 360천원/ha ◦ 지원내용 : 우리밀 종자·비료 구입비 지원 ◦ 시·군 : 대부분 도 매칭사업으로 지원, 의령(직불금 또는 비료·영양제 지원)		
의령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광역) 생산장려금 28.8만원/ha 자부담 7.2만원/ha	(기초) 1천원/포대(40kg)
경북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광역) 생산장려금 40만원/ha	
	◦ 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대상면적 : 250ha ◦ 지원내용 : 우리밀 생산비 지원 ◦ 시·군 : 대부분 도 매칭사업으로 지원		
전남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광역) 생산장려금 15만원/ha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대상면적 : 4천ha ◦ 지원단가 : 150천원/ha 내외 ◦ 지원내용 : 생산장려금(보조 100%) ◦ 시·군 : 대부분 도 매칭사업으로 지원, 구례·장성(별도 생산장려금 지급), 해남(자가수분증진제·톤백·수매수수료 등 추가 지원)		
구례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기초) 경영안정대책비 50만원/ha 미생물(EM) 발효퇴비 및 일반퇴비(비료) 무상공급	
장성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기초) 생산장려금 2000원/가마	

구 분	주 요 내 용		
해남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광역) 15만원/ha	(기초) 자가수분증진제·톤백·수매수수료
전북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 광역차원의 생산자 지원 없음,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순창)에 총 25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80%) 수립 ◦ 시·군 : 부안·정읍(자체 예산으로 비료대 지원)		
부안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기초) 비료 16.1만원/ha, 자부담 6.9만원	
정읍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기초) 비료 12만원/ha, 자부담 18만원	
충남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 광역차원의 생산자 지원 없음 ◦ 시·군 : 천안(1억원 예산, 150ha 비료대 50% 지원)		
천안	(국고) 밭농업직불금 50만원/ha	(기초) 비료 33만원/ha, 자부담 33만원	

자료: 국산밀 산업협회 내부자료(2016)

○ 충청남도는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밀 6차 산업화 추진계획(2016.6)', '우리밀 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8.5)'을 수립·추진

- 정부정책(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과 유사한 접근방식 및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고, 지역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화·특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요 목표로 농업인 조직화 및 용도별 단지조성으로 생산 효율성 제고, 지역간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수입밀 대체 등 지속적 소비처 발굴로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설정

〈표 2-22〉 충청남도 우리밀 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9-2023) 주요내용

중점과제	세부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농업인 조직화 및 용도별 단지조성	◦ 권역별 토론회를 통한 조직화 촉진 ◦ 권역별 단지조성으로 생산효율성 제고	◦ 지역별 토론회 추진 ◦ 출하조직 육성 사업 추진
전국 최고 품질 생산관리	◦ 우량종자 공급, 재배기술 지도 ◦ 충남형 재배매뉴얼 개발 (기후·성분량 등 고려)	◦ 우량종자 보급 ◦ 재배기술 보급 ◦ 품질검사기기 보급 ◦ 품질에 따른 생산장려금 차등 지원
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협업체계 구축	◦ 주체 간 역량과 자원 공유 유도 ◦ 기관/단체/업체 간 협약체결로 상생발전	◦ 광역단위 생산장비 지원으로 협력체계 구축 ◦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이행 ◦ 우리밀 민관협의체 구성

자료: 충청남도(2018.5), '우리밀 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9-2023)'에서 작성

4. 관련 분야 연구동향

1) 밀 산업 관련 연구

○ 밀 산업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①밀 산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안, ②밀의 용도별·지역별 품질향상, ③밀 가공품에 대한 특성규명, ④생산력 및 자급력 제고 방안'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밀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접근과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경향이 있으며, 지역농업 관점에서 연구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표 2-23〉 국내 밀 산업 관련 연구동향

구 분		주 요 내 용
밀 산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재단 (2011)	국내외 환경변화와 부문별 현황분석, 시장분석과 소비자 의식조사를 통해 밀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안
	강천식 외(2016)	국내 밀 산업현황과 품종개발 및 연구현황을 분석하여 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
	권승구 외 (2016)	국내 밀 산업의 현황 및 주요 사업체 동향과 지역의 밀 산업 사례를 통해 국산밀 자급률 상승을 위한 방안을 제시
	정은미 외 (2020)	국내외 수급동향과 생산·유통·소비·R&D 등 현황을 분석하여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관점의 밀 산업 발전방안을 제안
밀의 용도별·지역별 품질향상 연구	국립식량과학원 (2016)	용도별·지역별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매뉴얼 개발, 수매등급 설정 및 품질규격, 밀가루 품질 균일화 및 이용성 향상방안 제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용도별 기준 재설정을 목적으로 품종의 품질·규격화를 위한 재배품종의 특성, 단백질함량에 의한 품질변화, 주산단지 품질 등 평가
밀 가공품에 대한 특성 규명 연구	김상숙 외 (2014)	밀가루 제품(우리밀·수입밀)의 수분·단백질·식이섬유 함량 등을 비교·분석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 제시
	양홍교 (2016)	우리밀·중국밀·수입밀의 특성 및 항산화활성 등을 비교하여 우리 밀가루의 품질 특성을 제시
생산력 및 자급률 제고 방안 연구	국립식량과학원 (2010)	품질향상과 재배 농가들의 종자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우수품종 종자 생산단지 조성방안 제시
	국립식량과학원 (2012a)	소비자 요구 및 시장을 분석하여 소비자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자급률 제고 전략 및 방향 제시
	국립식량과학원 (2012b)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산밀 생산기술 및 품질향상, 대규모 이모작 재배단지 조성, 간척지 밀 재배기술 확립 등 제시

❍ 한편 최근 들어 국내의 열악한 밀 자급기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와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산업과 정책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음

- 「밀 산업 육성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등이 있음

(1) 밀 산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 지역재단(2011)은 국내외 환경변화와 생산·소비·제분·정책 등 부문별 현황분석, 시장분석과 소비자 의식조사를 통해 밀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음

-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지역발전과 소득창출 기여, 지역산업 육성 등 세부목표를 제시
- 친환경 고품질 계획생산체계, 지역기반 수요확대체제, 지역밀착형 클러스터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가치 추구형 홍보마케팅 강화 등 추진과제를 제시

❍ 강천식 외(2016)는 국산 밀 생산량, 밀 품종 육성현황 등 산업현황과 국내 밀 품종개발 및 연구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권승구 외(2016)는 국내 밀 산업에 대한 현황과 주요 사업체 동향, 지역의 밀 산업 사례 등을 분석하여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함

❍ 정은미 외(2020)는 국내외 수급동향과 생산·유통·소비·R&D 등 현황을 분석하여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관점의 밀 산업 발전방안을 제안하였음

- 생산과 소비 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품종 및 품질 관리를 통한 이용률 증대, 소비확대 방안 등을 제시

(2) 밀의 용도별·지역별 품질향상 연구

❍ 국립식량과학원(2016)은 밀의 용도별·지역별 품질향상을 위해 재배매뉴얼 개발, 수매등급 설정 및 품질규격, 밀가루의 품질 균일화 및 이용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8)은 용도별 기준 재설정을 위한 밀 품종의 품질 및 규격화를 목적으로 국내 재배 주요 밀 품종의 특성평가, 단백질 함량 변화에 따른 품질변화 평가, 주산단지 품질평가 등을 진행하였음

(3) 밀 가공품에 대한 특성 규명 연구

○ 김상숙 외(2014)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밀가루 제품(우리밀·수입밀 각 4종)에 대한 수분·단백질·식이섬유 함량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밀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시함

○ 양홍교(2016)는 우리밀과 중국밀, 수입밀의 일반적인 특성 및 항산화활성 등을 비교하여 우리 밀가루의 품질 특성을 정리하였음

(4) 생산력 및 자급률 제고 방안 연구

○ 국립식량과학원(2010)은 국산밀의 품질향상과 재배 농가들의 종자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우수품종 종자 생산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하였음

○ 국립식량과학원(2012a)은 국산밀 소비자 요구 및 시장을 분석하여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한 밀 자급률 제고 전략수립 및 방향을 제시하였음

○ 국립식량과학원(2012b)은 국산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술 및 품질향상과 대규모 이모작 재배단지 조성, 간척지 재배기술 확립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음

2) 품종개발 연구

○ 품종개발은 주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밀 육성품종은 약 40여개로 금강밀, 조경밀, 백중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내 밀 품종개발은 2000년까지는 주로 농가소득 증가를 위한 수량성 증대 및 벼 후작 재배가 가능하도록 수확시기를 단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용도별 품종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고 있음(강천식 외, 2016)

- 국내 연구가 외국에 비해 늦은 이유는 수매기반 등이 없었기 때문이며, 2008년도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급률 향상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품종개량 및 보급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강력분용으로 조경밀(4), 백강밀(5), 박력분용으로 고소밀(6), 조아밀(7), 중력분용으로 금강밀(8), 백중밀(9), 수안밀(10), 호중밀(11), 새금강밀(5) 등이 새롭게 개발되었음

❍ 현재까지 개발된 품종은 대부분 국수용(76.7%, 23개)으로 중력분 중심의 다목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표 2-24〉 국내 육성 주요 밀 품종 현황

구분	품종명	육성 연도	수량성 (㎏/10a)	주요 특성
국수용 (23종)	금 강	1997	422	백립계, 고제분, 조숙, 내한성
	백 중	2007	535	백립계, 붉은곰팡이병 중도저항성
	수 강	2008	472	적립계, 내한성과 수발아 저항성
	수 안	2009	578	적립계, 답리작 적응, 수발아 강
	호 중	2012	510	수발아 저항성 강, 저 아밀로스 함량
	새금강	2015	562	다수성, 내수발아, 붉은 곰팡이병 강
	태 중	2016	493	적립계, 붉은곰팡이병 저항성, 중력분
	조 한	2016	536	적립계, 조숙, 내도복, 중력분
빵 용 (2종)	조 경	2004	519	백립계, 조숙, 대립, 고제분, 경질밀
	백 강	2015	513	백립계, 다수성, 대립, 식빵 부품성 양호
과자용 (2종)	고 소	2010	573	적립계, 수발아 강, 조숙, 다수성
	조 아	2011	526	적립계, 조숙, 수발아강
취반용 (3종)	신미찰1호	2006	558	적립계, 내도복, 내한성, 찰밀
	백 찰	2012	483	백립계, 수발아 중도저항성, 찰밀
	조 중	2014	548	춘파재배 가능, 수발아 저항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국산 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능성을 높인 '국산 밀 삼총사(오프리, 아리흑, 황금밀)'를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10]

- ‘오프리’는 국내 품종인 ‘백강’과 ‘올그루’의 인공교배로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GMO)이 아닌 인공교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된 밀을 개발함
- ‘아리흑’은 일반 밀에 비해 안토시아닌·탄닌·폴리페놀 성분이 많고, 항산화 능력도 약 10배 높으며, 껍질에 기능 성분이 함유되어 통밀로 이용 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재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황금밀’은 단백질 함량(14%)이 높아 끈기가 풍부한 초강력분으로 제빵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냉해나 도복에 강해 생산성이 높은 것이 특징

10) 오프리(알러지 저감), 아리흑(안토시아닌, 탄닌 고함유)의 경우 기능성 품종으로 개발되어 식품 특허를 출원한 품종

3 장

전라북도 밀 산업 현황

1. 생산 및 조직 현황
2. 가공 및 유통 현황
3. 관련 정책 추진현황

제 3 장 전라북도 밀 산업 현황

1. 생산 및 조직 현황

1)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전북지역의 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지로써 위상을 가지고 있음

○ 도내 밀 생산현황은 전국적인 흐름과 유사하게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5~2016년 다시 증가하였으나 이후부터 현재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음

○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연간 평균 재배면적은 1,803ha 정도이며, 생산량은 7,140톤 규모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5%, 24.9% 수준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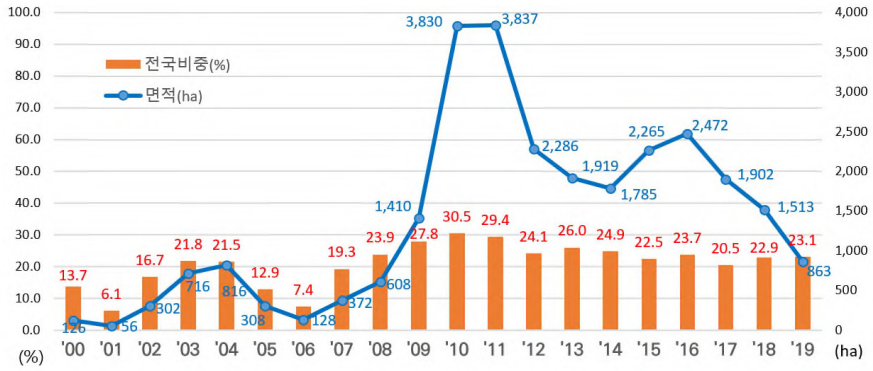
- 2019년 기준으로 도내 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3.0% 감소한 863ha 정도이며, 전국의 23.1%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생산량 역시 전년대비 40.5% 감소한 3,805톤 규모로 전국에서 25.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 전라북도 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15~'19)
면적 (ha)	전국	919	2,395	12,548	10,076	10,440	9,283	6,600	3,736	8,027
	전북	126	308	3,830	2,265	2,472	1,902	1,513	863	1,803
	비중(%)	13.7	12.9	30.5	22.5	23.7	20.5	22.9	23.1	22.5
생산량 (톤)	전국	2,339	7,678	39,116	26,433	38,705	37,425	25,788	15,024	28,675
	전북	397	1,417	13,558	6,501	10,358	8,637	6,399	3,805	7,140
	비중(%)	17.0	18.5	34.7	24.6	26.8	23.1	24.8	25.3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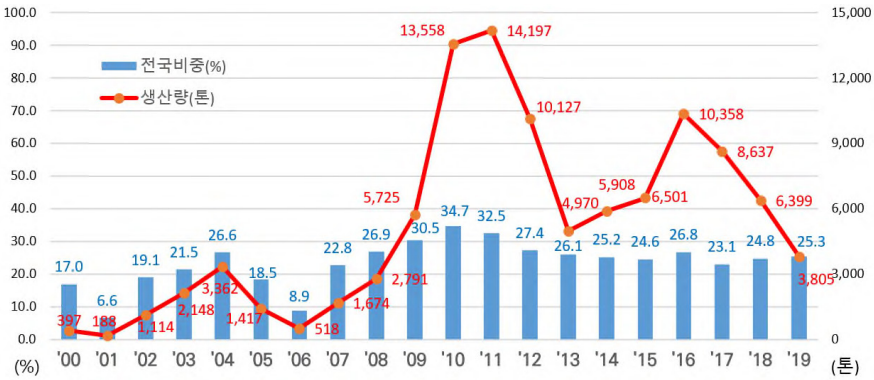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각년도

〈그림 3-1〉 국내 밀 재배면적 추이(2000~2019년)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각년도

〈그림 3-2〉 전라북도 밀 생산량 추이(2000~2019년)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각년도

○ 10당 생산량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2019년 기준 441kg(전년대비 4.2% 증가), 최근 5년간 평균은 405kg으로 전국 평균 대비 약 1.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 전라북도 10a당 밀 생산량(2000~2019년)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15~'19)
전국(톤)	255	321	312	262	371	403	391	402	366
전북(톤)	315	460	354	287	419	454	423	441	405
배수(배)	1.24	1.43	1.13	1.10	1.13	1.13	1.08	1.10	1.11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각년도

❍ 도내 서부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한 7개 시·군(김제시·부안군·익산시·정읍시·전주시·군산시·고창군)에서 밀 재배가 이뤄지고 있으며, 동남부 지역의 경우 재배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전라북도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도내 밀 재배 농가수는 약 1,022호, 재배면적은 2,033ha, 생산량은 8,633.6톤으로 파악됨[11)]

- 도내 밀 재배 농가수의 경우 시군별로 김제시(23.0%), 부안군(17.2%), 전주시(13.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김제시로 도내의 29.5%(600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부안군(20.7%), 익산시(20.4%), 정읍시(10.3%)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비례하여 생산량도 김제시가 가장 많은 32.4%(2,800톤)를 차지하며, 이어서 부안군(22.1%), 익산시(21.5%), 정읍시(9.3%)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재배면적은 353ha, 생산량은 1,628.9톤 정도 증가하였으며, 익산시와 부안군의 증가량이 두드러진 반면 고창군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3-3〉 전라북도 시군별 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2018-2019년)

시군	농가수(호)	2018년(a)		2019년(b)				증감(b-a)	
		면적(ha)	생산량(톤)	면적(ha)	비중(%)	생산량(톤)	비중(%)	면적(ha)	생산량(톤)
합계	1,022	1,680.0	7,004.7	2,033.0	100.0	8,633.6	100.0	353	1,628.9
전주시	135	170	328	170	8.4	330	3.8	0	2
군산시	50	120	600	120	5.9	600	6.9	0	0
익산시	228	160	699	414	20.4	1,853	21.5	254	1,154
정읍시	85	190	620	210	10.3	800	9.3	20	180
김제시	235	550	2,700	600	29.5	2,800	32.4	50	100
고창군	109	127	538	78	3.8	322	3.7	-49	-216
부안군	176	352	1,486	435	21.4	1,904	22.1	83	418
완주군	4	11	33.7	6	0.3	24.6	0.3	-5	-9.1

주: 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로 통계청의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0)

11) 전라북도가 2020년 초에 자체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집계한 결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경우 통계청의 농작물생산조가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

○ 도내 밀 생산에 필요한 종자 수요량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평균 171.6톤이 요구되지만 공급량은 47.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이후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80.0% 수준으로 나타남

〈표 3-4〉 전라북도 밀 종자 수요 및 공급 현황(2015~2019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재배면적(ha)	2,265	2,472	1,902	1,513	863	1,803.0
수요량(톤)	453	494	380	303	173	360.6
공급량(톤)	181	164	218	157	138	171.6
	금강 120.6 백중 60	금강 88.2 백중 75 수안 1.2	금강 98 백중 13.4 수안 100.9 조경 6	금강 145.4 수안 2.1 조경 9.9	금강 93 조경 45.4	
수요 대비 공급비(%)	40.0	33.2	57.3	51.9	80.0	47.6

주: 종자수요량은 면적 10a 당 종자 20kg로 계산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0)

2) 시설현황

○ 도내 7개 조직에서 밀 건조시설 4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당 1개에서 많게는 18개까지 보유하고 있음

○ 저장시설은 사일로의 경우 군산·익산·정읍·김제·부안 지역의 6개 조직에서 2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저장능력은 12,100톤 규모로 파악됨

- 저온창고의 경우 익산·정읍·김제·부안 지역의 4개 조직에서 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저장능력은 3,340톤 규모임
- 전주·정읍·김제·부안 지역의 4개 조직에서 평창고 등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조직은 5개가 있으며, 총 저장능력은 5,600톤 규모임

○ 밀가루 제분시설의 경우 전주·정읍·김제·완주 지역의 4개 조직에 구축되어 있으며, 제분능력은 조직마다 상이한 1~8톤/일 규모로 연중 가동일수는 평균 190일 정도임

○ 밀쌀용 도정시설의 경우 전주·정읍·김제 지역의 3개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도정능력은 6~10톤/일 규모로 연중 가동일수는 평균 123일(30~250일) 정도이나 조직마다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3-5〉 전라북도 밀 건조·저장 시설 구축 현황

시군	경영체명	건조시설			저장시설						
		설치 년도	개	능력 (톤/일)	설치 년도	사일로		저온창고		기타 (평창고 등)	
						개	능력 (톤)	개	능력 (톤)	개	능력 (톤)
전주시	우리밀영농조합	-	-	-	'09~'11	-	-	-	-	3	2,000
군산시	(유)농업법인 군산우리밀	'11	1	20	'11	7	3,500	-	-	2	400
익산시	익산시보석우리밀영농조합법인	'15	3	108	'15	4	2,000	-	-	-	-
	익산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	'11	8	52	'10	-	-	1	200	-	-
정읍시	(영)정읍명품귀리사업단	'17~'19	3	90	'11~'20	2	600	3	2,120	1	1,000
김제시	김제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	'06~'13	18	90	'06~'09	6	2,400	-	-	1	800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	-	-	-	'10	-	-	1	220	1	300
부안군	부안우리밀영농조합법인	'04	10	100	'09	6	2,400	2	800	2	1,100
	하서농협	'19	4	60	'19	4	1,200	-	-	-	-
합 계		-	47	520	-	29	12,100	7	3,340	10	5,600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0)

〈표 3-6〉 전라북도 밀 제분·도정 시설 구축 현황

시군	경영체명	제분시설(밀가루)					도정시설(밀쌀)			
		설치 년도	개	능력 (톤/일)	연중 가동 일수	비고	설치 년도	개	능력 (톤/일)	연중 가동 일수
전주시	우리밀영농조합	'08	3	8	250	노후화, 가동에 어려움	'08	3	8	250
정읍시	(영)정읍명품귀리사업단	'15	1	2	90	소규모, 제트기류 방식	'15	1	10	90
김제시	김제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	-	-	-	-	-	'14	1	6	30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	'19	1	1	240	소규모, 롤러밀 방식	-	-	-	-
완주군	농업회사법인 대성팜	'12	1	7	180	중수형, 백밀가루가능	-	-	-	-
합 계		-	6	18	190		-	5	24	123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0)

3) 조직현황

(1) 지역별 생산조직현황

❍ 밀을 생산하는 7개 시·군에 16개의 생산조직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생산, 건조, 저장, 유통 분야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익산시·고창군에는 각각 4개의 생산조직이 존재하며, 정읍시·김제시·부안군은 2개 조직, 전주시·군산시는 단일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금강이 약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금강, 백강, 조경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금강 품종을 선호하는 이유는 중력분 중심의 시장구조와 다목적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른 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생산조직마다 1~3개 정도의 주요 판매처를 중심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주로 생협·농협·제분공장·대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부 OEM방식의 제품 가공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제과·제빵업체, 외식업체 등으로 유통·판매하거나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생산조직도 있음

❍ 생산조직마다 경영규모와 시설·장비, 조직화 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생산과 유통의 안정성 확보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3-7〉 전라북도 시·군별 밀 생산조직 현황

시군	농가(법인명)	주요품종	주요 판매처
전주시	전주우리밀영농조합	금강	수매, 외식업체 등
군산시	(유)농업법인 군산우리밀	금강, 백찰밀	SPC우리밀
익산시	익산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	금강, 백강	구례우리밀가공공장
	보석우리밀영농조합법인	새금강	한국우리밀농협
	청보리한우영농조합법인	금강, 조경	완주대성탑 밀가루 공장
	유한회사법인 한맥	금강	-
정읍시	정읍시 샘골농협	금강	생협, 한국우리밀농협, 남도그린
	정읍명품귀리사업단	금강	아이쿱생협

시군	농가(법인명)	주요품종	주요 판매처
김제시	우리밀영농조합법인	금강, 백강	대한제분, 동아원, 삼양밀맥스
	참조은밀협동조합	금강, 백강	아이쿱생협, 우리밀네트워크
부안군	부안우리밀영농조합법인	금강, 조경	㈜쿱양곡지점
	하서농협	금강	우리농촌
고창군	부안면 우리밀작목반	금강	광주우리밀조합, 김제우리밀조합, 아이쿱부안생협
	다홈영농조합	금강	농협, 롯데백화점
	고창군우리밀생산자위원회	금강	한국우리밀농협
	더불어영농조합법인	금강	광주 우리밀조합, 국립종자원
완주군	개인사업자	금강	개인판매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 운영상의 어려움과 요청사항

○ 생산조직 대부분이 원료곡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이자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전주시의 경우 부족한 보급종과 수매자금, 소비자의 우리밀 접촉기회와 사용업소 부족, 고품질 원료곡 생산기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결여 등을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꼽음

○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연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수매제도 지원 등을 주요한 정책사업으로 제안하고 있음

○ 전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고품질의 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채종단지 조성, 수매자금 지원방식의 개선,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확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

- 또한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서 국산 밀가루를 사용한 음식점 및 가공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요청

○ 익산시는 정부(산물)수매, 고창군은 가공생산시설 지원, 김제시·완주군은 지역 소상공인(빵집 등)과의 연계를 통한 판매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였음

○ 부안군의 경우 국산 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표 3-8〉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애로사항과 제안사업

시군	애로사항	제안사업
전주시	◦ 보급종 확보 ◦ 수매자금 지급(1년치 일시에 지급) ◦ 밀, 밀가루 판로의 어려움 ◦ 소비자의 우리밀 접촉기회 부족 (견학·체험 등) ◦ 우리밀 사용업소 부족 ◦ 고품질 원료곡 생산 ◦ 거버넌스 구성	◦ 채종단지 조성 ◦ 수매자금 지원 ◦ 우리밀가루 사용 음식점 및 가공업체 소통 강화 (제과·중화요리·국수·막걸리·피자·냉면 등) ◦ 6차산업 활성화 및 체험예산 확보 ◦ 사회적경제조직과 우리밀 사용 협력체계 구성 ◦ 농가 교육 및 체험 확대 ◦ 농가-농협-가공업체(1차·2차)-소비자-행정- 의회-언론-대학 등 거버넌스 구축
군산시	◦ 원료곡 판매 어려움	-
익산시	◦ 원료곡 판매 어려움	◦ 정부수매(산물수매)
김제시	◦ 원료곡 판매 어려움	◦ 지역 소상공인(빵집 등) 연계 사업 활성화
완주군	◦ 원료곡 판매 어려움	◦ 지역 소상공인(빵집 등) 연계 사업 활성화
고창군	◦ 판매처 확보 및 수매제도 부활	◦ 밀 가공생산시설 필요
부안군	◦ 원료곡 판매 어려움	◦ 우리밀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가격경쟁력 제고

2. 가공 및 유통 현황[12)]

1) 식품기업 현황

❍ 전라북도에서 2020년에 실시한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도내의 식품기업은 약 68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소재지 기준 완주군과 전주시의 비중이 각각 25.0%(17개소), 17.6%(12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형태는 일반사업자가 63.2%(43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농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의 경우 26.5%(18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단·학교·사회복지 법인, 협동조합(생산자·사업자), 농가(2개소) 등의 형태도 존재함

12) 전라북도가 2020년에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도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기업에서 자체 응답한 결과로 추가적인 검증과정은 이뤄지지 않아 자료사용에 주의가 요구됨

〈표 3-9〉 전라북도 식품기업 운영형태

구분	개소수	비중(%)	농가(개인)	농업법인	일반사업자	기타
고창군	3	4.4	-	2	1	-
군산시	4	5.9	-	2	2	-
김제시	6	8.8	-	1	4	1
남원시	7	10.3	1	2	4	-
부안군	3	4.4	-	2	1	-
순창군	2	2.9	-		2	-
완주군	17	25.0	-	3	13	1
임실군	4	5.9	-	1	1	2
전주시	12	17.6	-	2	10	-
전주시	1	1.5	-		1	-
정읍시	7	10.3	-	3	4	-
진안군	2	2.9	1	-	-	1
합계(%)	68	100.0	2 (2.9)	18 (26.5)	43 (63.2)	5 (7.4)

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일반사업자(주식회사·유한회사 등), 기타(사단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협동조합 등)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식품기업들의 연중 가동일수는 평균 227.8일 정도이며, 42일 이하로 가동하는 업체는 10.7%(6개소)로 나타남

〈표 3-10〉 전라북도 식품기업 가동일수

연중 가동일	6~42일	150~200일	220~250일	260~300일	301~360일	합계
개소수	6	8	28	10	4	56
비중(%)	10.7	14.3	50.0	17.9	7.1	100.0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식품기업의 고용인원은 총 1,680명(상시고용 인원 96.1%)으로 파악되며, 고용인원이 없거나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6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56.1%(37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수는 4.2명 정도로 파악됨

〈표 3-11〉 전라북도 식품기업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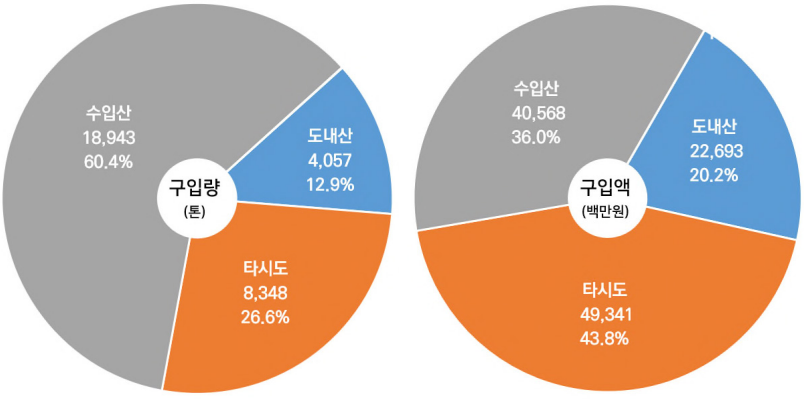
구분	고용인력			상시고용		임시고용	
	개소수	비중(%)	인원수	개소수	인원수	개소수	인원수
없음	9	13.6	-	-	-	-	-
1~10인	37	56.1	156	36	114	20	42
11~20인	6	9.1	90	6	81	3	9
21~30인	3	4.5	77	3	77	1	0
31~40인	2	3.0	74	2	59	2	15
51~100인	4	6.1	284	4	284	0	0
101인 이상	5	7.6	999	5	999	0	0
합 계	66	100.0	1,680	56	1,614	26	66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 구입현황

○ 도내 식품기업에서 2019년에 밀을 원재료로 구입한 물량은 약 31,359톤 규모로 추산되며, 이중 수입산이 60.4%로 가장 많고, 도내에서 생산된 물량은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전라북도 식품기업 밀 구입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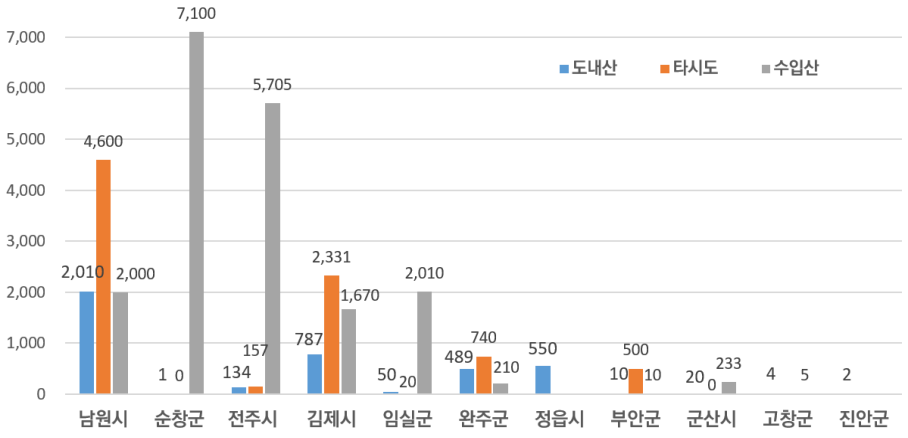


- 남원시 식품기업의 구입량이 전체의 27.5%(8,610톤)로 가장 많고, 이어서 순창군(22.6%), 전주시(19.1%), 김제시(15.3%), 임실군(15.3%) 순으로 나타남
- 도내산 구입량을 기준으로 대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남원시(49.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읍시와 진안군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대부분 도내산으로 구입하고 있음

- 순창군에 소재하는 식품기업은 거의 전량을 수입산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임실군(96.4%), 전주시(95.1%), 군산시(92.1%)의 경우 구입량의 90% 이상이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전라북도 시군별 식품기업 밀 구입량 현황(2019년)



〈표 3-12〉 전라북도 식품기업 밀 원재료 구입량

구분	합계		자가생산(톤)	국내산				수입산	
				전북도내		타시도			
	구입량(톤)	비중(%)		구입량(톤)	비중(%)	구입량(톤)	비중(%)	구입량(톤)	비중(%)
전주시	5,996	19.1	0	134	2.2	157	2.6	5,705	95.1
군산시	253	0.8	0	20	7.9	0	0.0	233	92.1
정읍시	551	1.8	0	550	99.9	0.3	0.1	0	0.0
남원시	8,610	27.5	0	2,010	23.3	4,600	53.4	2,000	23.2
김제시	4,790	15.3	2	787	16.4	2,331	48.7	1,670	34.9
완주군	1,439	4.6	0	489	34.0	740	51.4	210	14.6
진안군	2	0.0	0	2	100.0	0	0.0	0	0.0
임실군	2,085	6.6	5	50	2.4	20	1.0	2,010	96.4
순창군	7,101	22.6	0	1	0.0	0	0.0	7,100	100.0

구분	합계		자가생산(톤)	국내산				수입산	
				전북도내		타시도			
	구입량(톤)	비중(%)		구입량(톤)	비중(%)	구입량(톤)	비중(%)	구입량(톤)	비중(%)
고창군	13	0.0	4	4	30.8	0	0.0	5	38.5
부안군	520	1.7	0	10	1.9	500	96.2	10	1.9
합 계	31,359	100.0	11	4,057	12.9	8,348	26.6	18,943	60.4

주: 식품기업에서 자체 응답한 결과이며, 일부 기업 등이 미응답하여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함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이들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입액은 약 112,612백만원 규모로 파악되며, 도내산의 비중은 20.2%에 불과한 반면에 타시도(43.8%)와 수입산(36.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원시 식품기업의 구입액이 전체의 76.5%(86,100백만원)를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완주군(11.0%), 전주시(3.6%) 순으로 나타남
- 남원시의 경우 도내 식품기업들의 도내산 구입액 가운데 88.6%(20,100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의 대량구입에 의한 결과로 해석됨

〈표 3-13〉 전라북도 식품기업 밀 원재료 구입액

구분	합계		자가생산(톤)	국내산				수입산	
				전북도내		타시도			
	구입액(백만원)	비중(%)		구입액(백만원)	비중(%)	구입액(백만원)	비중(%)	구입액(백만원)	비중(%)
전주시	4,074	3.6	0	221	5.4	318	7.8	3,536	86.8
군산시	206	0.2	0	20	9.7	0	0.0	186	90.3
정읍시	832	0.7	0	831	99.9	1	0.1	0	0.0
남원시	86,100	76.5	0	20,100	23.3	46,000	53.4	20,000	23.2
김제시	4,127	3.7	0	763	18.5	1,938	47.0	1,426	34.6
완주군	12,358	11.0	0	384	3.1	709	5.7	11,265	91.2
진안군	4	0.0	0	4	100.0	0	0.0	0	0.0
임실군	2,140	1.9	0	340	15.9	200	9.3	1,600	74.8
순창군	2,301	2.0	0	1	0.0	0	0.0	2,300	100.0

구분	합계		자가 생산 (톤)	국내산				수입산	
				전북도내		타시도			
	구입액 (백만원)	비중(%)		구입액 (백만원)	비중(%)	구입액 (백만원)	비중(%)	구입액 (백만원)	비중(%)
고창군	25	0.0	10	10	38.7	0	0.0	5	21.0
부안군	445	0.4	0	20	4.5	175	39.3	250	56.2
합 계	112,612	100.0	10	22,693	20.2	49,341	43.8	40,568	36.0

주: 식품기업에서 자체 응답한 결과로 구입단가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일부 기업 등이 미응답하여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함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3) 매출현황

○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도내 식품기업들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약 3,558.8억원 이상으로 추정됨[13)]

- 남원시가 전체 매출액의 41.0%(146,088백만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김제시(17.4%), 전주시(14.4%), 순창군(12.3%) 순으로 파악됨

○ 각각의 식품기업이 생산하는 밀 관련 제품 중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주력 상품(1종)이 전체 매출액의 80.5%(2,863.4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매출액이 높은 상품은 주로 만두류, 장류, 라면, 과자류, 빵류, 국수, 원곡 등임

〈표 3-14〉 전라북도 식품기업 밀 관련 주요 상품 매출현황

구분	합계	상위1	상위2	기타
매출액(백만원)	355,878.6	286,343.3	18,581.8	50,953.5
비중(%)	100.0	80.5	5.2	14.3
주요 상품명	-	만두류, 장류, 라면, 과자류, 빵류, 국수, 원곡 등	장류, 국수, 밀가루, 라면, 과자류, 빵류 등	과자류, 빵류, 누릉지 등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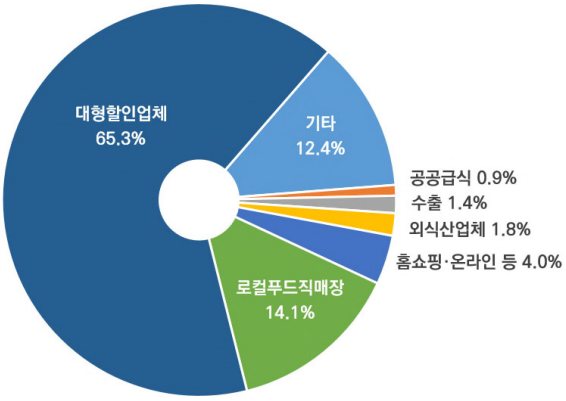
○ 주요 판매처별 2019년 매출액 규모는 대형할인업체 비중이 가장 많은

13) 밀 외의 제품들까지 포함한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을 의미함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로컬푸드 직매장(14.1%), 기타(12.4%), 홈쇼핑·온라인(4.0%), 외식산업체(1.8%) 순으로 나타남

-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대한 매출액 규모는 전체의 0.9%(6,572백만원) 수준으로 집계됨
- 대형할인업체에 대한 판매비중이 높은 지역은 남원시(지역 내 99.8%), 부안군(95.4%), 순창군(95.1%), 임실군(80.1%) 등으로 나타남 - 중대규모, 기업중심
- 군산시는 수출(지역 내 90.9%), 완주군은 홈쇼핑·온라인(70.3%), 전주시는 기타(85.8%), 김제시·고창군은 로컬푸드직매장(각각 58.6%, 83.5%)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5〉 전라북도 밀 관련 식품기업 판매처별 매출현황(2019년)



〈표 3-15〉 전라북도 식품기업 밀 관련 제품 판매처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총매출액	비중(%)	공공(학교)급식	외식산업체	대형할인업체	로컬푸드직매장	홈쇼핑 온라인	수출	기타
전주시	51,276	14.4	-	439	44	4,673	1,075	1,067	43,978
군산시	1,589	0.4	130	1	-	3	10	1,445	-
정읍시	1,718	0.5	-	-	300	600	818	-	-
남원시	146,088	41.0	-	-	145,842	50	134	-	62
김제시	61,970	17.4	2,653	5,102	17,280	36,325	157	453	-
완주군	17,130	4.8	124	130	918	3,853	12,055	-	50

구분	총매출액	비중 (%)	공공 (학교) 급식	외식 산업체	대형할인 업체	로컬푸드 직매장	홈쇼핑 온라인	수출	기타
진안군	41	0.0	-	-	-	40	1	-	-
임실군	25,350	7.1	200	600	20,300	4,200	50	-	-
순창군	43,694	12.3	-	-	41,590	-	3	2,100	1
고창군	623	0.2	-	-	20	520	83	-	-
부안군	6,400	1.8	-	300	6,100	-	-	-	-
합 계	355,879	100.0	3,107	6,572	232,394	50,264	14,386	5,065	44,091
비중(%)	100.0		0.9	1.8	65.3	14.1	4.0	1.4	12.4

주: 식품기업에서 자체 응답한 전체 매출액 규모를 의미하며, 일부 기업 등이 미응답하여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함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4) 운영상의 어려움과 요청사항

○ 밀 관련 식품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마케팅 등 판로 개척'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확충 등을 위한 자금 확보'가 27.1%로 나타남

- '상품 개발'의 경우 14.6%, '인력 확보'는 8.3%로 응답하였으며, 기타의견으로 방역문제, 수매자금, 농가 활성화, 유사기업 등이 있었음

〈표 3-16〉 전라북도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구분	시설확충 등 자금 확보	마케팅 등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상품 개발	기타
빈도(개)	13	20	4	7	4
비중(%)	27.1	41.7	8.3	14.6	8.3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식품기업이 직면해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정책(50.0%)'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HACCP인증과 자동화시설 등 가공사업장에 대한 시설·장비 개선 지원, 상품 홍보·마케팅 및 판매처 확대에 대한 의견에 각각 11.8%씩 응답하였음
- 기타의견으로 학교급식 보조, 수입밀 대비 차액지원, 유사기업에 대한 제재, 로컬푸드 가공기반 구축, 농업인 가공교육, 해충방제 지원 정책 등을 제안하였음

〈표 3-17〉 전라북도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주 요 내 용	빈도(개)	비중(%)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R&D 지원 확대	17	50.0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HACCP인증/자동화시설 등)	4	11.8
상품 홍보 및 마케팅, 판매처 확대	4	11.8
운영자금 지원	3	8.8
기타 (학교급식, 수입밀 대비 차액지원, 로컬푸드 가공기반 등)	6	17.4
합 계	34	100.0

3. 관련 정책 추진현황

1) 관련 조례 제정

○ 전국 5개 시·도에서 밀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전북은 밀과 콩을 대상으로 하는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20년 2월 28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및 우리 밀·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

〈표 3-18〉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제4조	계획수립	○ 밀·콩산업 관련 현황 및 전망 ○ 종자연구 및 기술개발과 보급 ○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 ○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 ○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 ○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등
제5조	지원사업	○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기술 지원 ○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저장·가공시설 등 지원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등
제6조	생산단체 지원	○ 밀·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지원
제7조	협의회 구성	○ 삼락농정위원회 식량분과를 통한 심의·자문 ○ 필요시 협의회 구성 및 운영(10명 내외)
제8조	협의회 기능	○ 중장기계획 수립, 기술개발(품종개량·재배방법 개선 등), 예산지원, 생산자 보호 육성, 소비촉진(홍보·체험활동 등), 가공산업 발전 등 심의·자문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다른 시·도와 비교해 특징적인 것은 소비촉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으며, 협의회의 운영방식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 공공기관·학교·기업 등의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사용 장려 및 우선구매 요청 등 소비촉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삼락농정위원회 식량분과에서 밀·콩 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밀 또는 우리콩 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편 전주시와 부안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음

- 「전주시 우리밀·우리콩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2015.12.30.)」에서 생산·가공 및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계획수립, 생산비와 생산단체 지원, 가공시설 지원, 공공급식 사용 장려, 위원회 구성·기능 등 명시
-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제정 2020.8.14.)」에서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한 계획수립, 농업인·단체 지원, 위원회 설치·기능 등 명시

2) 정책사업 추진현황

○ 전라북도에서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우리밀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등이 대표적임

○ 국비지원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현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를 대상으로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 비예산사업으로 농촌진흥청 밀연구팀과 연계하여 통밀쌀 이용 밀밥 우수성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밀 사용업소 인증제도를 국산밀 산업협회 자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도내 실적은 없는 상황

○ 한편 부안군의 경우 우리밀 생산장려금 및 채종포 지원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장기 계획을 통한 지역단위 특화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군산시의 경우 최근 신제품 개발 지원과 특화거리 조성사업 연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김제시의 경우 지평선 우리밀 명품화사업을 통해 저장·가공 시설 등 산업기반을 구축해왔음

〈표 3-19〉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주요사업 현황

사업명	기간	사업대상	사업비	사업량	주요 사업내용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20년 ~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 [집단화된 농지 10ha 이상, 단일품종 (금강·조경) 재배, 15인 이상 농업경영체]	240백만원 (국비 120, 지방비 96, 자부담 24)	8개소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교육, 농가조직화 등 컨설팅 지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06년 ~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400백만원 (도비 120, 시군비 280)	9개 시·군	우리밀 제품 간식 제공
우리밀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18년 ~ '19년	우리밀 사용 도내 가공업체	200백만원 (도비 36, 시군비 84, 자부담 80)	2개소	기계장비·수매·저장 시설, 6차산업 체험시설 등 지원
우리밀 사용업소 인증제도	'18년 ~	우리밀 100% 사용업소 (밀공급 회원사에서 확인)	비예산 (국산밀 산업협회 자조금으로 운영)	실적 없음	국산밀 사용 인증서 발급
통밀쌀 이용 밀밥 우수성 홍보	'19년	도내 학교·어린이집 영양사	비예산	150명	설명회 개최 (농촌진흥청 밀연구팀 주최)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0)

(1) 전라북도 주요 지원사업

❍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밀을 사용한 제품을 간식으로 공급하여 우리밀 제품의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
-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밀 제품(빵·국수·라면·밀가루 등)을 지원하고, 공급기간(4~12월) 내 주2회(총 80회 이하) 미만 공급물량을 지원

❍ 우리밀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 우리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생산 촉진과 소비자 인식제고로 국산밀의 자급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우리밀 가공업체의 기계장비·수매·저장시설 확충, 6차 산업 연계형 체험시설 개·보수 등 지원

(2) 시·군 주요 지원사업 (부안군)

❍ 우리밀 채종포 지원사업

- 우리밀 재배농가의 정부보급종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및 순도가 높은 우량종자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 포장 및 종자 검사비, 종자 및 육묘 구입비, 병해충 공동방제비, 공동작업비, 비료 및 농약 구입비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포장검사 합격 30%, 종자검사 합격 후 70% 지급)

❍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우리밀 재배를 확대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가공·유통 확대 및 소비유도로 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 우리밀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40kg당 2,000원 내외 지원 (㏊당 200천원 / 10a당 조곡 400kg 기준)

❍ 우리밀 가공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중)

-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국산밀 사용과 지역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지원
- 국산밀 구매가격을 수입밀의 약 1.5배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4 장

밀 관련 활성화 사례

1. 로컬푸드 · 창업지원
2. 농식품 가공 및 유통
3. 지역특화산업 육성
4. 주요 시사점

제4장 밀 관련 활성화 사례

[조 사 개 요]

○ 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①로컬푸드·창업지원, ②농식품 가공 및 유통, ③지역특화산업' 등 3개 영역을 설정하여 대상을 선정

○ 도내에서 생산한 밀을 가공하여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경영체, 국산 밀을 전문적으로 가공·유통하는 기업, 밀 산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합하여 지역단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한 사례에 초점을 맞춰 대상을 유형화하였음

○ 조사내용은 조직개요(일반현황 및 추진과정 등), 운영현황(사업구조, 제품현황, 생산·가공·유통 현황, 추진계획 등), 문제인식,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조사

○ 밀 관련 사업 및 조직을 운영하면서 느낀 문제점과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함

○ 조사방법은 도내 사례의 경우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도외 사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관련 문헌·언론·인터넷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표 4-1〉 밀 관련 활성화 사례 조사 틀

유형	로컬푸드·창업지원 (3개소)	농식품 가공 및 유통 (3개소)	지역특화산업 육성 (2개소)
대상	◦ 꿈드림 영농조합법인 ◦ 시골빵집협동조합 ◦ 청년키움식당 완주점	◦ 새롬식품 ◦ 풍년제과 강동오케익 ◦ 농업회사법인 ㈜네니아	◦ 천안우리밀영농조합법인 ◦ 구례우리밀영농조합법인
관점	◦ 지역 내 생산-가공-소비	◦ 국산 밀 전문 가공·유통	◦ 지역단위 특화산업 육성
목적	◦ 지역소비 촉진 시사점 ◦ 로컬푸드 연계 방안 ◦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성	◦ 가공 활성화 방안 ◦ 대량 수요처 확보 ◦ 일반시장 대응방안	◦ 지역단위 특성화 방안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 다양한 주체 참여형 사업
유형	◦ 제과·제빵·외식사업 ◦ 소규모 경영체 단위	◦ 전문 가공·유통 기업 ◦ 중규모 이상 경영체 단위	◦ 생산·가공·유통·판매 연계 ◦ 관계 기관·조직 연대 협력
주체	◦ 농가·개인·청년 등	◦ 전문 경영인	◦ 지역협력체, 생산자조직

1. 로컬푸드 · 창업지원

1) 완주로컬푸드 꿈드림영농조합법인

(1) 조직개요

- ‘완주로컬푸드 꿈드림영농조합법인’에서는 가공식품 및 교육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된 통합브랜드인 ‘담소담은’을 2012년 설립하였음
  - ‘저스트펌킨’은 담소담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들어진 브랜드임
- 2012년 완주군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 소규모 가공지원사업을 통해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단호박 가공품(떡·식혜류·분말·죽) 생산을 시작
-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인증을 획득하고, 완주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지속해서 성장해오고 있음
- 2015년 6차산업 인증 및 복합농장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제품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HACCP인증, 체험장 및 떡카페 건립 등 교류공간을 조성
- 2016년 우수 농촌공동체회사에 선정되는 등 제품개발과 지역주민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2017년 쌀·곡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료 계약재배를 확대
- 2018년 1인 기업에서 종사자를 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2019년 삼례 담소담은 디저트카페를 오픈하였음

(2) 운영현황

- 밀 관련 제품은 로컬푸드직매장과 협동조합 6개소, 용진농협, 봉동농협에 납품하고 있으나 HACCP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만 납품예정임
  - 기존에는 로컬푸드직매장에 2차 가공품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다소 의존적인 운영방식이었으나 현재 로컬푸드의 팽창으로 인해 자립이 필요한 상황임
  - 학교급식이나 개인판매, 온라인유통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장해갈 예정이며, 학교급식과 간식 분야는 HACCP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원재료인 밀은 전주우리밀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수급하고 있으며, 아리흑의 경우 농진청과 연계를 통해 수급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일반 유통체계보다 카페·교육·가공·판매 등 6차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다각화 전략에 노력하고 있음

- 소비자들이 농촌지역을 찾아올만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치유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체험 중심의 농장으로 전환을 추진 중임
- 브런치카페를 선호하는 고객층(20~40대 초반)을 주요 타켓으로 하여 상품의 가치를 알아주고, 비용을 부담하면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마케팅 방향을 설정

❍ 국산밀 제품은 대부분 제과·제빵류로 로컬푸드직매장에 마들렌과 쿠키류를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키움식당에서 건강식빵을 이용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브런치 메뉴로 판매하고 있음

- 초기에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떡을 주력으로 하였으나 유통기한 문제로 발생하는 재고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는 즉석식품 형태를 주로 제조하고 있음
- 밀떡(떡볶이떡)의 경우 쌀떡에 비해 식감이 좋지 않아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기술개발 중이며, 향후 지역에서 직접 사갈 수 있는 구조로 유도할 예정임
- 백밀로는 마들렌과 쿠키류를 만들고 있으며, 아리흑으로 만든 쿠키의 경우 색감도 좋고, 맛도 좋아서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 밀 외에도 단호박, 만감류(한라봉), 음료, 분말, 떡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6차산업 인증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단호박을 이용한 식혜의 경우 HACCP 인증을 받아 지속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에 판매할 예정이며, 머핀은 체험과 함께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진행 중임

(3) 문제인식

❍ 떡을 생산하다가 제과·제빵류 중심으로 변경한 이유는 젊은 고객층의 선호도가 높고, 제조공정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

- 떡은 제조과정에서 양이 줄어들지만 빵은 발효를 거치기 때문에 부피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가격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폭이 크다는 장점이 있음
-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떡에 비해 빵의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고, 유통기한이 길어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시 재고처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 국산밀은 수입산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으나 제조할 경우 크

게 차이가 없는 편이고, 양이 많아질 경우 채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국산밀을 사용하여 쿠키나 마들렌을 만들기에 수입밀이 좋기는 하지만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제빵류의 경우에는 식감 등에서 한계가 있음
- ❍ 초보자가 국산밀을 사용해 빵의 맛과 영양을 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며, 경제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빵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임

(4) 대응과제

- ❍ 국산밀 제조·가공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인력육성이 필요하며, 역량있는 제빵사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
- ❍ 국산밀 제품을 특성화시켜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6차산업 등과 연계하고, 지역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으로 확산되어야할 것임
- ❍ 국산밀을 사용하는 업체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 안정적인 지원제도가 요구되며, 국산밀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

〈영농조합법인 꿈드림 담소담은(외부)〉

〈영농조합법인 꿈드림 담소담은(내부)〉

〈다양한 만들기체험〉

〈만감류 시설재배〉

자료 : '영농조합법인 꿈드림 담소담은' 내부 발표자료(2019.7)

2) 시골빵집협동조합

(1) 조직개요

- ❍ 시골빵집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제빵사들이 모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 제과·제빵류를 제조·판매하고 있음
  - ‘건강과 마음을 담아 드시는 분에게 건강과 행복을 드리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빵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 ❍ 2019년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우리밀영농조합과 협업하고 있으며, 어울림 도서관 진로체험 등에 주기적으로 재능기부도 실천하고 있음
- ❍ 2020년 ‘완주로컬푸드직매장 하가점’에 공모를 통해 입점하였으며, 입점 기준은 지역에서 결성된 조직으로 국산밀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음

(2) 운영현황

- ❍ 국산밀은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로 인해 일반 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편이며, 로컬푸드직매장 입점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음
  - 경험상 국산밀 가공에 대한 어려움과 가격적인 차이만 있을 뿐 빵의 품질면에서는 수입산으로 만든 것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음
- ❍ 기본적으로 팥빵·크림빵·식빵 등 밀을 사용한 대부분의 빵을 만들고 있으며, 국산밀을 사용한 빵은 빈속에 먹어도 속쓰림이 없다는 이점이 있음
- ❍ 전주우리밀영농조합을 통해 금강밀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조합이 지역에서 수매하여 제분회사를 통해 전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
- ❍ 건강에 관심이 많은 가정주부가 주요 구매층으로 단골고객 중심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HACCP 인증이 어려워 공공급식에 대한 납품은 어려운 상황
-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판매가 증가하여 올해 2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배달앱과 연계하고 있지 않아 방역조치 강화의 여파로 최근 매출은 낮아진 상황

(3) 문제인식

○ 수입밀과 비교해 글루텐 함량이 적은 국산밀의 특성상 노화가 심하고, 퍼석퍼석하며,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국산밀 제품에 대한 수요자체가 낮기 때문에 제품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수입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음

- 과거에는 국산밀 제품의 가격이 더 높았으나 현재는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밀로 만든 디저트류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국산밀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구매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임

○ 국산밀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고, 생계문제로 인해 교육과정 등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농업·농촌을 위해 경제사업을 하는 농협의 빵집에서도 국산밀을 사용하지 않고, 수익을 우선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완주로컬푸드직매장 하가점(시골빵집협동조합)〉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기부활동〉

(4) 대응과제

○ HACCP인증 공장을 설립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공공급식 등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면 국산밀 사용 증가와 일거리창출에 기여할 것임

○ 창업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가공장비 및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종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국산밀과 관련하여 안심농산물 등의 인증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우리밀축제 등과 연계하여 도민들에게 인식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산밀 가공이 까다로운 여건을 고려하여 가공·창업 등을 고려하는 인력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가공관련 전문가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됨

○ 국산밀 관련 소상공인,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지 않아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필요

3) 청년키움식당 완주점

(1) 조직개요

○ 청년키움식당은 외식창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본금 없이 식당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 7개소(서울 은평점, 신촌점, 종로점, 성수점, 인천점, 공주점, 완주점)가 운영 중임
- 사업비 2억원 한도의 70%(자부담 30%)를 지원하고, 팀별로 1~3개월간 진행되며, 주방시설, 주방기물 및 인테리어, 컨설팅 및 멘토링, 쿠킹클래스 진행, 타 업체 벤치마킹, 사후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

○ 청년키움식당 완주점은 2018년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과 완주군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였으며, 2019년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레스토랑에서 새롭게 오픈하였음

(2) 운영현황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에서 직접 만든 요리를 서비스하여 고객의 평가에 따른 시장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 사업장, 교육·컨설팅, 주방기구·비품, 홍보비 등을 지원받았으며, 식재료 구입비와 수도광열비 등 비용은 스스로 해결하고, 참여팀이 매출액을 갖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장년층의 경우 청년과 팀을 이뤄 참여가 가능하고, 운영절차에 따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됨

- (1단계) 공모·선발단계로 대학팀·청년팀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되며, 사업계획서와 추천서 등의 서류심사를 진행
- (2단계) 메뉴 품평회를 진행하여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선발된 팀이 매장을 운영하며 사업, 메뉴기획, 조리, 판매, 서비스 등을 실제와 동일하게 진행
-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팀은 2018년 덮앤더머, 우스키친, 한반도 육회, 2019년 카페볼수록, 마로스키친, 2020년 다정, 보물섬, 밥, 꽃피다 등으로 우리농산물 및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음

❍ 국산밀을 사용하는 팀은 총 4팀(2019년 2팀, 2020년 2팀)으로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국산밀을 경험한 이후 인식이 바뀌었으며,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향후 외식창업 후에도 사용에 대한 의지를 보임

❍ 국산밀로 만든 라면세트와 빵을 이용한 브런치를 판매하고 있으며, 국수도 판매하였으나 품질 및 단가차이로 인해 현재는 판매하고 있지 않음

❍ 2021년까지 사업이 연장될 계획이며, 우리밀영농조합법인, 새롬식품 등 견학을 통해 HMR시장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3) 문제인식

❍ 정부에서 지원받은 우리농산물로 만든 제품은 맛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기능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소비자의 선호를 기대하기 어려움

❍ 창업 전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고정된 상권에 맞지 않는 메뉴는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국산밀을 사용할 경우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대량 소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입밀을 사용한 제품에 비해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음

❍ 국산밀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상황

(4) 대응과제

❍ 우선적으로 국산밀로 만든 제품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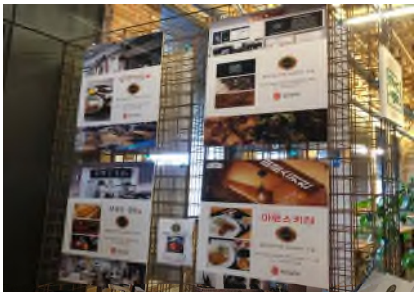
❍ 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밀영농조합, 지역의 관련 업체들과 연계하여 관련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

- 국산밀을 사용하는 참가팀들이 개발한 레시피로 만든 제품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

❍ 지원사업의 경우 재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밀과 함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재료들을 함께 사용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국산밀을 사용하여 창업하거나 메뉴를 개발·판매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국산밀 재고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청년키움식당 내부〉



〈청년키움식당 메뉴〉

2. 농식품 가공 및 유통

1) 새롬식품

(1) 조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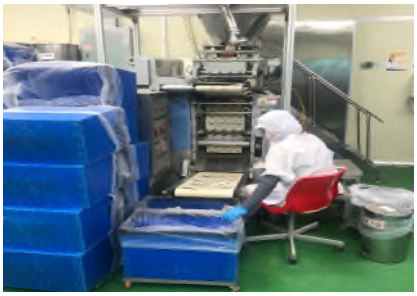
❍ 1991년 국산밀과 우리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기 시작

❍ 2001년 라면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해 2003년에는 홈쇼핑에서 감자라면

이 큰 인기를 얻었으며, 2004년 감자라면 및 곡물라면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

❍ 2014년 용기면(컵라면) 4열 라인을 준공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라면라인(봉지·용기), 스프라인 등에 대한 HACCP 인증을 획득

❍ 2017년 용기면 라인에 신규 기계 투자설치를 통해 생산량 및 생산성이 증가



〈분말식품 포장설비〉

〈X-RAY검출기〉

〈포장라인〉

〈우리밀라면 제품〉

(2) 운영현황

❍ 국산밀을 고수하는 이유는 우리농산물에 대한 정신적인 가치함양과 생산농가,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시장을 개척해가기 위함임

- 수입밀이 장악하고 있는 일반시장에서 가격경쟁은 어려운 상황으로 건강한 국산밀을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틈새시장에 대응하고 있음

❍ 매출구조는 자체제품 20%, 생협제품 30%, 우리농산물단체(전주우리밀영농조합·한살림·두레생명·카톨릭농민회 등) 30% 정도로 OEM과 특화제품이 전체의 50~60%를 차지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유통 전문기업인 애터미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밀 수급은 전주우리밀영농조합 등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납품은 주로 한살림, 두레생협, 카톨릭농민회, 초록마을 등 우리농산물 매장을 통해 이루어짐

- 생협·한살림의 경우 직접 구매한 원재료를 사용한 제조·가공을 원칙으로 거래

❍ 주요 품목으로는 우리밀라면·감자면·쌀라면·컵라면 등 자체품목 18개와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60여개 품목이 있으며, 감자면이 매출의 70~80%를 차지

- 초기에는 칼국수를 판매하였으나 유통기한에 한계가 있고, 라면시장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국산밀 사용의 가능성을 보고 품목을 변경하게 되었음
- 인천 2공장에서는 국산 밀을 사용한 빵·제과·스낵·핫도그·초코파이 등을 만들어 연 300톤 정도의 원맥을 사용하고 있음
- 컵라면의 경우 국산밀 소비촉진을 위해 28% 함량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최근에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특화제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흑돼지를 이용해 만든 '돗멘'과 군산원예농협의 '군산짬뽕'이 시장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3) 문제인식

❍ 일반 소비자들의 국산밀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소비가 확대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내에는 로컬푸드 매장이 많이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매장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임

- 밀을 재배하지 않거나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으로 원료를 수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요

❍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입밀은 kg당 500~600원에 구매가 가능한 반면에 국산밀은 2,100원 정도로 약 3~4배 차이가 나며, 최대한 노력해도 1.8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일반 라3면회사의 마진은 약 10~15% 정도이나 우리밀라면은 7% 정도로 원맥 자체의 가격차이로 인한 한계가 있음

❍ 라면자체의 품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색감이나 완성도는 낮은 편이고, 빵류 등은 주요 판매처인 생협의 기준이 엄격해서 첨가제를 최소화하여 건강에는 좋으나 맛이 떨어진다는 점이 소비 확대의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

- 국산밀은 무농약으로 재배되다시피 하여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맛을 위해 첨가물을 넣게 되면 오히려 차별성이 떨어짐

❍ 수입밀은 2년을 보관해도 벌레가 발생하지 않으나 국산밀은 습한 여름철에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나눠서 수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4) 대응과제

❍ 국산밀 생산자가 가장 우선하여 상품을 홍보·구매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지역에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음

- 국산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생산자와 관계자들이 가공제품을 직접 먹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함께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
- '군산짬뽕' 사례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생산농가들의 단합을 통해 소비활성화를 견인해가고 있음

❍ 6차산업과 연계하여 다각화하는 전략은 실제 먹거리를 구매하는 주체인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소비 활성화로 연결이 가능

- 주요한 소비주체를 대상으로 현장체험과 식생활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

❍ 국산밀 사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재료 구매가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며, 유통판매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제품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2) 전주수제 우리밀초코파이 : 풍년제과(강동오케익)[14]

(1) 조직개요

- ‘강동오케익’의 브랜드인 ‘풍년제과’는 1969년 개점하였으며, 전주한옥마을의 대표적인 간식인 우리밀 수제 초코파이를 생산하는 기업임
- ISO9001 인증(2008), 수출유망 중소기업 인증(2010), FDA 및 HALAL 인증(2011)을 획득하고, 프리미엄브랜드(2015)와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등 수상
- 2008년 에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국산밀 사용에 노력해왔으며, 2015년 우리밀과 쌀로 만든 빵부문 인증(한국전문기자협회)을 받음

(2) 유통현황 및 운영상의 특징

- 주력 상품은 고소밀을 사용한 초코파이, 케이크, 과자류로 중국, 미국, 독일, 중국, 대만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 가공용에 적합한 신품종 초다수성 보람찬·드래찬을 계약재배하여 사용하며, 글루텐 프리제품을 케익, 쿠키, 전병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하고 있음
- 도내에서 생산된 밀을 2014년 153.4톤, 2015년 259.4톤을 소비하는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성을 높여가고 있음[15]
- 익산의 한그루영농법인과 계약재배를 통해 ‘고소밀’ 연 50톤을 수급하여 한정판 초코파이를 생산하고 있음
  -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산밀에 대한 인식교육을 위해 전주우리밀영농조합과 함께 ‘내가 만든 풍년제과 전주 수제 초코파이 만들기 체험 키트’를 제작
- 국내 최초로 자체개발한 곡물발효종을 사용한 천연효소 제빵방법을 활용하여 국산밀의 단점을 개선
  - 곡물발효종 빵은 국내 비주류 곡물생산 농가에게 새로운 판매처가 되었으며, 맛, 품질, 건강을 모두 고려한 신개념의 고품질 로컬푸드로 평가받고 있음

---

14) 강동오케익 홈페이지(http://gdocake.com), 한국농어민신문(2018.5.4.) ‘농업과 기업간 협력 현장을 가다 〈3〉풍년제과 강동오케익·황등농협’에서 작성

15) 경향신문(2016.5.31), ‘강동오케익 지역 및 사회를 향한 남다른 행보’에서 작성

(3) 문제인식

- ❍ 국산밀의 특성상 발효과정에서 수입산에 비해 잘 부풀어 오르지 않아 빵을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반면에 국산밀은 겨울을 거쳐 생육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적어 수입밀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 과거 밀 수확 전 국산밀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여 원료를 구하는 것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음

(4) 대응과제

- ❍ 현재는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화하면서 국산밀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접근이 필요
- ❍ 향후 국산밀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농업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해갈 계획

〈우리밀 전병〉

〈우리밀 과자전병〉

〈우리밀 초코파이〉

3) 농업회사법인 ㈜네니아[16]

(1) 조직개요

- ❍ 2004년 ㈜우리밀급식으로 시작하였으며, 국산밀 제품을 전문적으로 가공·유통하는 업체로 상호명은 '자연 가까이(Nature Near)'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16) 네니아 홈페이지(https://econenia.co.kr), 한국농어민신문(2020.9.11.) '우리밀, 유통·가공을 잡아라 〈1〉농업회사법인 ㈜네니아'에서 작성

❍ 우리밀 제품(만두·면·빵 등), 로컬푸드, 유기농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모든 재료는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매출 약 160억원(2019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상 고객이 300여명, 월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이 1천명 정도인 친환경농산물 전문기업

❍ 2015년 친환경 유기농매장 '네니아 북촌직영점'과 친환경 직영식당 '꽃, 밥에 피다(인사동)'를 개점하였으며, 친환경식품쇼핑몰(https://econenia.co.kr)을 운영 중임

(2) 운영현황

❍ 생산지와 연계하여 350여 가지의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으며,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제외하기 위해 전부 국내산만을 사용하고 있음

❍ 연간 350~400톤 정도의 우리밀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다 생산 시 매입을 위해 1,980㎡(600평)의 냉동창고가 설비되어 있음

- 전남 해남의 우리밀영농조합과 땅끝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 밀을 수매하고, 경북 김해 봉하마을의 저온저장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 수요가 발생하면 충남 당진의 동아제분에서 각 제품의 가공특성에 따라 제분하여 각 가공업체에 공급되거나 완제품은 네니아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음

❍ 주거래처는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의 지역 학교 급식공급센터이며, 두레생협 등 협동조합에도 납품하고 있음

-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쿠팡, 마켓컬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확장해가고 있음

❍ 대두단백, 글루텐, 복합화합조미료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설탕·후추·초콜릿 등을 제외하고 순수 국산재료만을 사용하고 있음

❍ 국산밀을 사용하여 우동면·냉동짜장면·수제비·어묵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천연버터를 사용한 30여종(핫도그·통밭찐빵·찰보리팬케익·쿠키 등) 이상의 빵을 가공하고 있음

(3) 문제인식

❍ 국산밀의 재고가 쌓이고 있으나 여전히 판매가 미흡한 상황으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

❍ 제분기계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설비기계이기 때문에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4) 대응과제

❍ 다양한 우리밀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제분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학교와 군 급식 등 공공급식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대해가는 방안 필요

❍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수매·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세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

❍ 국산밀 가공라인을 별도로 구축하여 제분 시 세제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가공분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제품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네니아 홈페이지 : https://econenia.co.kr〉

3. 지역특화산업 육성

1) 천안우리밀영농조합(천안호두과자)[17]

(1) 조직개요

❍ 2011년 17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준조합원 40명을 포함한 약 50여명의 농민들이 400ha에서 약 1,000톤의 밀을 생산하고 있으며, 826㎡(250평) 규모의 정선·건조·석발 시설과 저온저장창고를 갖추고 있음

❍ 충청남도 천안시는 2009년부터 지역에서 생산한 밀을 활용한 천안호두과자 생산을 계획하고, 밀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 2011년부터 풍세면·광덕면을 중심으로 농자재 지원보조 및 기술지도를 통해 밀 생산을 활성화시켜 2015년 600톤 규모로 성장하였음

(2) 운영현황

❍ 법인에서 생산된 밀은 삼양사에서 OEM 방식을 통해 제분한 후, 자체적인 상표로 전국 제과점 및 식당으로 배송하는 체계를 갖춤

- 초기에는 판로를 찾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연간 2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밀을 수매할 만큼 생산 및 판로가 안정화되었음

❍ 2013년에는 천안호두과자에 연간 250톤(46,000만원)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천안호두과자 명품화' 전략을 추진

- 금강밀·고소밀이 주요 품종으로 현장에 접목된 기술에 맞춰 생산하고, 일괄 수매·판매하는 체계를 구축

❍ 호두과자·와플·밀국수 등을 개발하여 우리밀을 사용하는 전국의 제과점·식당·가공업체 등 전국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호두과자점 74개소 가운데 우리밀을 활용한 업체는 50곳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천안옛날호두과자는 천안역 본점과 11개 직영점을 비롯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흥타령 호두과자'의 경우 팥과 호두까지 전부 국내산으로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

---

17)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2016) '천안 호두과자 맛의 비밀을 아십니까?', 한국농어민신문(2020.9.25.) '우리밀, 유통·가공을 잡아라 〈3〉천안밀영농조합법인·우리밀 호두과자'에서 작성

○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해 국립종자원에서 제공한 순도 높은 종자를 파종하여 가공 적성에 적합한 단일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호두과자용 '고소밀'과 빵용 '금강밀'이 균등한 품질의 밀가루로 가공될 수 있도록 조직화를 추진

- 농촌진흥청과 협약하여 국산 앙급용 '아라리팥'을 재배농가에 전량 공급하였으며, 생산자조직(황금들녘영농조합법인)과 호두과자업체(천안당) 간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
- 품종별 톤백 보관 등 저장 및 가공 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을 증진시키고, 저온저장창고에 보관하여 훈증처리를 거치를 않는 등 저장체계를 개선

○ 호두의 국산화를 위해 3개년(2013~2015) 계획을 수립하고, 4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00ha(28,000그루)의 특화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호두과자업체와 연 80톤 공급 및 전량 수매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임

(3) 문제인식

○ 초기에는 호두과자 업체들이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국산밀의 특성으로 인해 사용을 꺼려하였으나 직접 가공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한계를 극복

○ 수입밀과의 가격차이는 호두과자의 판매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 호두과자에 사용되고 있는 '고소밀'이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되어 종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

(4) 대응과제

○ 국산밀 가공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제빵사들에게 기술을 교육하는 전문기관이나 조직이 필요

○ 고품질의 밀 생산을 위해서는 순도 높은 보급종의 안정적인 공급방안이 필요하며, 생산조직의 품종단일화와 역량강화가 요구됨

2) 구례 우리밀영농조합법인[18)]

(1) 조직개요

- ❍ 전라남도로부터 1읍면1특품(밀가루) 육성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49명의 조합원이 공동출자하여 전국 최초로 우리밀가공공장(370㎡)을 설립
- ❍ 2012년 우리밀체험 홍보관 건립하였으며, 최근에는 도토리냉면 가공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우리밀로 만든 당면 가공도 준비하고 있음
- ❍ 1일 약 10톤의 1차 가공이 가능한 규모로 연평균 도정량은 약 2,000톤 수준

(2) 운영현황

- ❍ 밀의 수매, 가공,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남 구례지역 외에도 익산·담양·함안·보성·군산 등에서 600~800ha, 1,000여명의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
- ❍ 자체 브랜드인 '밀벗'을 통해 통밀 칼국수, 울금국수, 우리밀 건빵, 통밀라면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
  - OEM 방식을 통해 (주)사조해표와 (주)네니아에 백밀가루, 통밀가루 등을 납품
- ❍ 국산밀 활성화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정책활동, 교육활동, 홍보활동,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 ❍ 체험학습의 경우 우리밀을 이용한 팥칼국수·찐빵 만들기를 비롯하여 떡·두부만들기, 짚신만들기, 농산물수확하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

(3) 문제인식

- ❍ 우리밀과 수입밀의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 전체 비용구조에서 유통비용으로 30~40%가 소모되고 있어 절감대책이 필요

---

18) 한국농어민신문(2020.9.15.) '우리밀, 유통·가공을 잡아라 〈2〉(주)쿱라면·우리밀가공공장'에서 작성

(4) 대응과제

- ❍ 국산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수입밀가루 제품가격에 우리밀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가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
- ❍ 지역별 품종과 생산량을 나누어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사이로 등의 전용 저장시설 구축이 필요
- ❍ 국산밀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물류단지 조성 및 유통비용 절감 대책 등 마련

〈우리밀가공공장〉

〈우리밀체험전시관〉

〈우리밀 체험활동〉

〈우리밀 제품〉

4. 주요 시사점

○ 밀 관련 활성화 사례를 '①로컬푸드·창업지원, ②농식품 가공 및 유통, ③지역특화산업' 등 3개 영역으로 유형화하여 조사한 내용을 조직운영·문제인식·대응과제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표 4-2〉 밀 관련 활성화 사례 주요 내용

구분	운영현황	문제인식	대응과제
로컬푸드·창업지원	◦ 지역 생산조직을 통해 수급 ◦ 로컬푸드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 ◦ 학교급식, 개인판매 및 온라인유통으로 확장할 계획 ◦ 6차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카페·교육·가공·판매·창업 등) ◦ 건강에 관심도가 높은 계층이 주요 고객대상	◦ 국산-수입 밀의 가격차이 ◦ 국산 밀 가공 전문가 부재 ◦ 수입밀 대비 품질균일화 미흡 ◦ 공공급식 HACCP인증 필요 ◦ 홍보 부족 ◦ 관련 주체 네트워크 부재 ◦ 제품의 다양성 부족, 낮은 수요 ◦ 정책지원, 교육 등 정보부족 ◦ 짧은 유통기한	◦ 지속성 지원 인센티브제도 ◦ 청년 유입을 위한 연계사업 ◦ 가공공장 HACCP인증 지원 ◦ 가공장비 지원 ◦ 인증제도 도입 ◦ 지역축제 연계 등 인식전환 기회 확대 ◦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HMR 시장진입·판로확대
농식품 가공·유통	◦ 생산조직 통해 원재료 수급 ◦ 건강한 국산밀을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 국산 밀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체험활동 진행 ◦ 온라인업체 등을 통한 판매방식으로 확장 추세 ◦ 가공특성 고려한 제분·가공	◦ 국산밀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소비 확대 한계 ◦ 수입밀과의 단가차이 ◦ 수입밀 대비 가공품질 미흡 ◦ 저장하기 어려운 작물 ◦ 불안정 소비와 재고발생 우려 ◦ 판매처가 적어 생산자와 소비자 접근성 낮음	◦ 생산단가 낮추기 ◦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농가단합을 통한 소비 확대 ◦ 지역특화제품 개발을 통한 고급화 전략 ◦ 정부수매 후속관리 ◦ 국산 밀 가공라인 제분업체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급식(학교·군) 확대
지역특화산업육성	◦ 품종별 저장·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증진 ◦ 농자재 보조 및 기술지도를 통한 생산기반 확대 ◦ 안정적인 생산 및 판로 확보 ◦ 품질향상 위한 기술 습득	◦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특성 ◦ 용도별 종자의 안정적인 확보 어려움 ◦ 수입밀과의 높은 가격차이 ◦ 30~40%가 유통비로 소모되는 경영구조	◦ 우리밀 가공 전문인력(제빵사) 지원 ◦ 순도 높은 보급종의 안정적인 공급 ◦ 우리밀 전문 처리 물류단지 조성

1) 운영현황

- ❍ 지역의 생산조직을 통해 원재료를 수급하고 있으며, 생산단계에서 품질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지도 등을 요청하고 있음
- ❍ 지역업체의 경우 주로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납품하거나 유통·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최근 온라인업체 등을 통한 판매방식으로 확장해가는 추세이며, 6차산업과 연계하여 카페·교육·가공·체험 등의 영역으로 사업분야를 다각화하고 있음
- ❍ 주요 고객층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계층이며, 일부 국산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자체적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음
- ❍ 품종별 저장 및 가공 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력을 확보하고, 가공특성을 고려한 제분 및 가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2) 문제인식

- ❍ 국산밀과 수입밀의 가격차이를 경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입밀과 비교해 품질균일화가 미흡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됨
- ❍ 국산밀 제조 및 가공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가운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나 협력체계도 미흡한 상황
- ❍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분야로 진출하고 싶지만 HACCP 인증 등 기준을 갖추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
- ❍ 국산밀의 우수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이 낮아 자발적인 소비촉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
- ❍ 낮은 수요로 인해 국산밀을 활용한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수입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유통기한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 공급자측면에서 관련 정책이나 교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수요자측면에서도 관련 제품이나 구매방법 등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결여돼 있음
- ❍ 판매처가 적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낮고, 불안정한 소비와 재고발생에 대한 우려로 국산밀을 활용한 창업 및 메뉴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3) 대응과제

- ❍ 수입밀과의 가격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전용 가공라인을 구축하여 1차 가공 시 혜택을 주어 가공분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 고려
- ❍ 가공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설비 지원, 창업초기 정착을 위한 운영 지원 등 경영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 ❍ 국산밀 제품의 다양화와 창업 및 메뉴 개발 등 지원을 확대하고, 가공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 전문 장비 및 설비 등 지원
- ❍ 국산밀 생산자, 소상공인, 전문가,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해가는 체계를 구축
- ❍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학교·군) 분야에 국산밀 제품의 납품기회를 확대하고, 적합한 기준의 시설기반 확충 및 HACCP인증 등 지원
- ❍ 국산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축제 등 관련 사업과 연계를 확대
- ❍ 인증제도를 도입을 통해 국산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촉진과 시장경쟁력을 강화
- ❍ 지역특화제품 개발을 통한 고급화 전략과 HMR(즉석편의식품) 시장진입을 통한 판로 확대 추진
- ❍ 국산밀 생산 및 가공·판매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생산자와 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 추진
- ❍ 품질향상을 위해 품종개발과 용도별 품종에 대한 순도 높은 종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체계를 구축
- ❍ 생산조직과 가공업체를 연계한 안정적인 계약재배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수매제 시행에 따른 후속관리와 전용 저장·가공 시설과 물류단지를 조성
- ❍ 정부의 자급률 제고 등 밀 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생산·수매·가공·유통·소비 등 전 분야에 대한 대응책 마련

5 장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1. 밀 산업의 특징
2. 전북의 현황진단
3. 대응방향
4. 정책과제

제 5 장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1. 밀 산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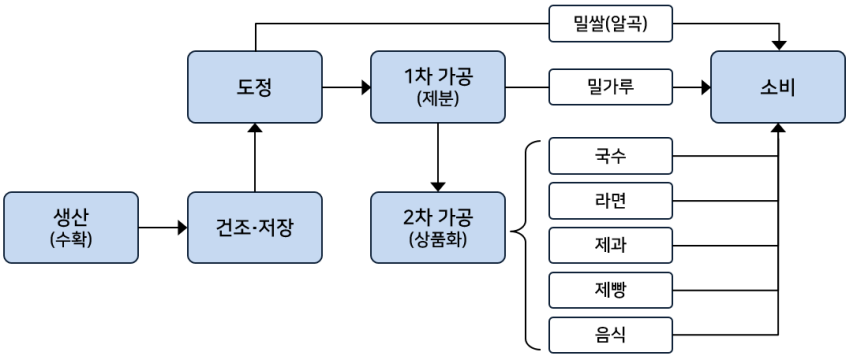
○ 밀 산업은 생산~가공~유통~소비(판매)로 이어지는 본원적 활동과 종자·건조 및 연구·개발 등 지원활동에 의한 가치사슬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상의 영역에 대한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쌀 등 식량작물과 유사하지만 생산방식과 가공 및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별로 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의 접근방식이 요구됨

○ 밀은 수확 후 선별·건조를 통해 저장하게 되며, 1차 가공(제분)을 통해 일부가 원맥(통밀쌀)으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2차 가공(제조)을 거쳐 다양한 상품으로 최종 소비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림 5-1〉 밀의 가치사슬(본원적 활동) 구조



1) 생산영역

○ 재배방식에 있어서 주로 논벼의 후작으로 겨울작기(10월에 파종하여 6월경 수확)를 이용한 이모작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음

○ 생육환경[19]과 재배지역에 따라 품질차이가 많으며, 작부체계상 월동작물로서 보리·양파·마늘 등과 경합성을 지님

○ 따라서 재배농가는 기회비용[20] 측면에서 불규칙한 생산·판매 구조로 인해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는 등 생산조직과 품질향상 관리의 어려움으로 작용

○ 쌀과 달리 도정 후 2년이 경과하면 가공적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건조·저장 과정에서 수분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

○ 밀은 RPC 시스템이 아닌 사일로나 저온저장 등 전용시설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일반 창고를 활용할 경우 습기로 인한 벌레·곰팡이 증식으로 인해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용도별 품종 단일화와 순도유지를 위한 혼종·혼입 방지,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을 위해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와 규모화가 필요

2) 가공·유통영역

○ 밀쌀용(알곡)을 제외한 대부분이 1차 가공(제분)을 거쳐 밀가루[21] 형태로 공급해야 2차 가공(제조)을 통해 다양한 상품화와 소비가 가능하다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 1차 가공(제분) 공정의 경우 주요 대기업들이 수요업체로부터 위탁하여 제분을 대행하는 방식의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제분공장의 가공능력에 비해 국산밀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은 상황임

○ 원맥(통밀쌀)의 경우 단체급식 등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며, 가공과정에서 떨어져나간 밀기울의 경우 대부분 사료용으로 활용됨

○ 따라서 최종 소비를 고려해 용도에 맞는 품종의 선택과 품질 관리가 중요하며, 가공업체에서는 가공적성을 가장 중요한 선호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

---

19) 습기에 약해 봄 숙기 장마로 인한 수발아가 이뤄지거나 병해 등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20) 농가에서는 논벼 재배를 위한 생산비 확보측면에서 이모작을 하는 경향이 있음

21) 가공용 밀가루의 경우 가공적성에 따라 사용처가 면류, 빵류, 제과류 등으로 분류됨

❍ 그러나 수입밀과의 경쟁에서 가공적성 등 품질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공업체의 사용량에 비해 국산 밀의 생산량이 저조해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분업체 및 식품 가공업체 등 다양한 수요업체들과 연계를 통해 산업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유통의 경우 전국범위의 수요업체가 시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재배·구매·저장·제분·가공·판매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음

❍ 생협과 학교급식 등 친환경시장을 중심으로 유통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국산밀 수요업체의 경우 복잡한 유통구조와 제한적인 시장규모로 인해 부분별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력과 인력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정은미 외, 2020)

3) 소비영역

❍ 밀은 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제2의 주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연간 1인당 소비량도 쌀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밀은 3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고정적인 소비가 이뤄지고 있음

❍ 국산밀의 80~90%가 수도권에서 소비되며, 대부분 가공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입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국산 밀 산업은 생협과 친환경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으며, 일반 소비시장 진출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정은미 외, 2020)

❍ 그러한 요인으로는 순수 국산 밀을 사용한 가공방식, 소량가공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경영구조, 한정된 유통채널에 의한 소비자들의 접근성 한계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음

❍ 또한 수입산 밀에 비해 국산 밀의 원료곡 가격이 약 3배 정도 비싸게 거래됨에 따라 가공품의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소비확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산 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수입산에 비해 국산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은 편이지만, 가격, 품질, 맛, 상품의 다양성, 구매의 접근성 측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특성을 보임

○ 공공급식의 경우 국수·햄버거·만두·라면·과자 등 주로 후식류로 납품되며, 기존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조달을 통해 납품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소비자들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산 밀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입밀과의 가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정책지원과 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됨

4) 지원영역

○ 밀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하여 특정영역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생산·가공·유통·소비·연구 등 전 분야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정책기반이 요구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정부정책은 수입산 밀에 의존하여 국내 수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일관해옴에 따라 자급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최근 식량안보차원에서 국산 밀의 자급력 향상과 소비촉진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대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력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역차원에서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밀 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대부분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종합적인 접근과 활성화에 미흡한 현실임

2. 전북의 현황진단

- ○ 밀 산업의 전반적인 특성은 전라북도의 현실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 ○ 전라북도의 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연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 충남의 경우 생산량은 적지만 소비량이 많아 지역소비가 가능하며, 천안 호두과자·뚜쥬르·국수나무 등 성공사례가 많으며, 전남의 경우 많은 물량을 기반으로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1) 생산영역

- ○ 전라북도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국의 22.5%, 24.9%로 전국 2위 수준이지만 전남의 절반수준에 불과
- ○ 10당 생산량은 전국 평균대비 1.11배로 최고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재배기술과 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역량은 타 지역에 상대적으로 발전한 상태
- ○ 금강밀 품종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과 가공을 연계한 용도별 단지조성 및 계획생산은 미흡한 상황
- ○ 종자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자가채종 등에 의한 혼종·혼입 등이 우려되며, 품질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 밀을 재배하고 있는 7개 시·군에 9개의 생산자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화 수준과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시장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로 인해 광역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
- ○ 수확 후 품질관리를 위해 전용 저장시설이 필요한 체계이나 사일로는 6개소, 저온창고는 4개소만 구축되어 있으나 품질향상과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요구됨
- ○ 생산조직마다 원료곡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상공인과 연계 활성화 방안을 요청

2) 가공·유통영역

- ❍ 도내 생산량에 비해 부족한 소비구조로 인해 대부분을 도외 지역으로 유통해야하는 상황이며, 수도권 유통을 위한 비용저감 대책이 필요
- ❍ 도내 생산량이 많은 것 같아도 1차 가공(제분)을 거쳐야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대기업 수준에서 수일 내에 제분할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
- ❍ 1차 가공(제분) 시설의 경우 4개소가 구축되어있지만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실제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주로 도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도내 식품기업은 68개소가 존재하지만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69.7%로 대부분을 차지
- ❍ 이들 식품기업에서 구입하는 원재료의 양은 수입산이 60.4%를 차지하며, 도내 산은 타 시·도보다 적은 12.9%(구입액 기준 20.2%)에 불과한 실정
- ❍ 도내산 밀을 구입하는 식품기업들의 경우 남원·김제·정읍 등 일부 지역과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유통채널을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있음
- ❍ 마케팅 등 판로 개척과 시설확충 등을 위한 자금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고 있으며,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정책을 가장 선호함
- ❍ 가공과정의 대부분을 외부로 위탁하는 구조에서 생산조직이나 소규모 업체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대기업 등의 자원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3) 소비영역

- ❍ 도내 식품기업의 상위 1위 제품들이 전체 매출액의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할인점 판매비중이 65.3%를 차지
- ❍ 주로 지역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 직매장(14.1%)과 공공·학교급식(0.9%)의 비중은 15.0% 수준에 불과하며, 전주·김제·완주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 ❍ 밀 생산 및 가공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직-가공업체-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차원의 특성화 방안이 필요

❍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특성화(군산짱뽕 등)하거나 명소화(부안 슬지네찐빵 등)하는 전략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등장

❍ 전북지역만의 특색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하며, 6차사업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고객충성도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됨

4) 지원영역

❍ 광역차원에서 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촉진, 농가소득 증대, 가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2020.2.28.)」를 제정하였으며, 시·군지역에서는 전주시만 관련 조례를 제정

❍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도차원의 정책사업은 소비촉진과 가공산업 장비·시설 지원 등이며, 최근 들어 시·군 단위에서 제품개발과 특성화 사업들을 일부 추진하는 정도임

❍ 밀 산업은 시·군단위에서 대응하거나 완결구조를 갖기 어려운 시장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광역차원의 정책적 접근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 특정 영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밀 산업을 활성화기 어려운 구조로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짜고, 플랫폼 방식으로 접근하는 지원이 필요

❍ 전라북도에 위치한 농식품·농생명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밀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상품화 및 기술 지원, 공공급식 및 공공기관 구매 등 연계사업 추진 등 강점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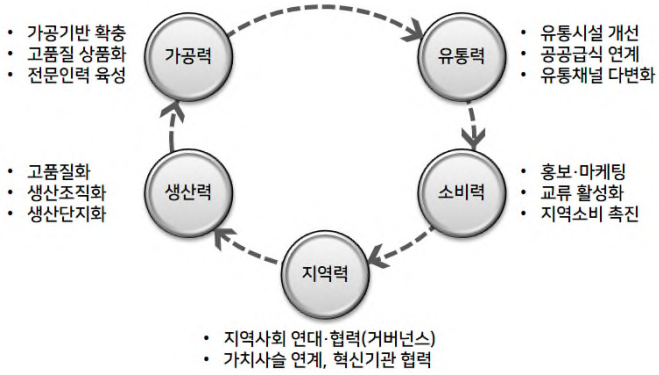
3. 대응방향

1) 기본방향

○ 밀 산업의 특성과 지역의 현황을 고려해볼 때 특정분야에 대한 개선이 아닌 가치사슬 전반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 지역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여건에 대하여 정부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그림 5-2〉 지속가능한 밀 산업의 순환체계



○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통한 밀 산업의 '지역력(地域力)[22]' 강화

- 지역의 생산자, 수요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
- 외부에 의존해온 가공·유통·소비에 대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
- 밀 산업 가치사슬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단계별 기반 확충과 영향력 강화

○ 조직역량과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생산력(生産力)' 강화

- 종자부터 재배의 전 과정에 대한 고품질 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을 강화
- 생산의 단지화·조직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생산체계를 구축

○ 가공기반과 상품성 강화를 통한 '가공력(加工力)' 강화

- 외부에 의존해온 지역의 가공기반(1차·2차) 확충과 가공역량 강화

---

22) (재)지역재단(2011)의 연구에서 국산밀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지역밀착형 클러스터 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력·경영력·마케팅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제휴의 외연 확대 촉진을 위한 '지역력' 강화의 개념으로 활용하였음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가공분야 전문인력 육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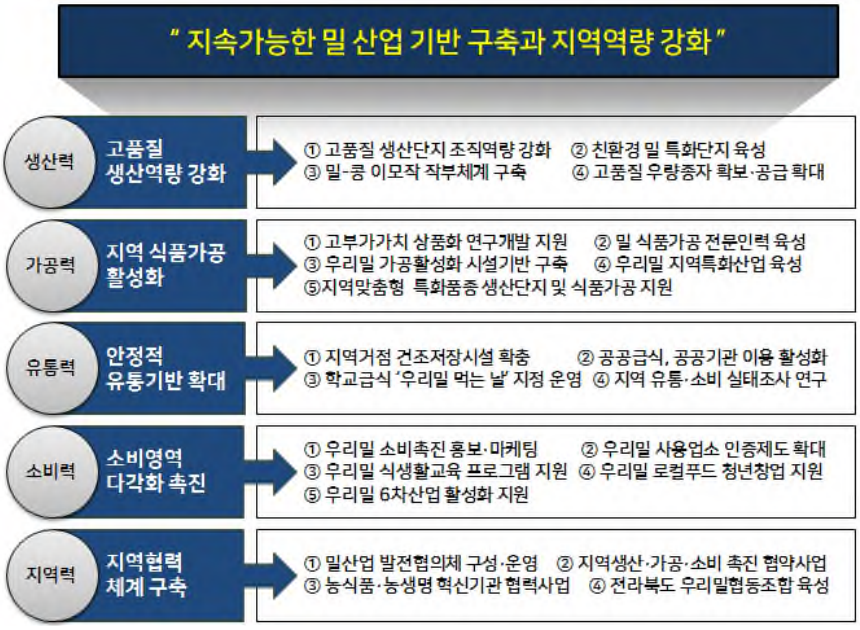
❍ 유통기반 확충과 공공급식 연계로 '유통력(流通力)' 강화
- 전용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해 품질향상과 유통시장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및 공공(학교)급식 등 연계를 확대
- 유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지역 내 판매·소비 실태조사를 통한 구조개선 지속

❍ 인식개선과 교류활동 촉진을 통한 '소비력(消費力)' 증진
- 국산밀 인식개선 및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의 지속적인 추진
-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
- 생산자(농촌)-소비자(도시)의 다양한 교류활동 촉진 및 정책사업 연계

2) 추진방안

❍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밀 산업 기반 구축과 지역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생산력·가공력·유통력·소비력·지역력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

〈그림 5-3〉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 고품질 생산역량 강화, 지역 식품가공 활성화, 안정적 유통기반 확대, 소비영역 다각화 촉진, 지역협력 체계 구축 등 5대 영역에 대한 22개 정책과제를 제시

(1) 고품질 생산역량 강화 [생산·품질]

○ 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생산력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과제로 종자부터 재배의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

○ 생산기반이나 농가수를 확대하는 양적인 규모화보다는 생산의 단지화와 조직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가는 전략이 유효

○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용도별 품종 선택과 품질의 균일화·표준화가 핵심과제로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확보 및 보급 체계를 구축

○ 전북지역의 강점인 논콩재배사업 및 친환경농업 등과 연계하여 이모작 작부체계의 선도적인 확산 모델과 차별화된 생산체계를 구축

○ 핵심과제

-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 친환경 밀 특화단지 육성
- 밀-콩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
-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및 공급 확대

(2) 지역 식품가공 활성화 [가공·상품화]

○ 1차 가공(제분) 등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가공기반을 확충하고, 가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추진

○ 지역의 부족한 가공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산조직과 농식품업체, 판매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 지역에서 생산된 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지원

○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별 품종과 가공기술을 연계한 수익성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이용한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력 제고, 다양한 판매채널과 수요처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시설·장비와 전문인력 확보

○ 핵심과제

- 고부가가치 상품화 연구개발 지원
- 지역 맞춤형 특화품종 생산단지 및 식품가공 지원
- 밀 식품가공 전문인력 육성
- 우리밀 지역특화산업 육성
- 우리밀 가공 활성화 시설기반 구축

(3) 안정적 유통기반 확대 [유통·급식]

○ 장기간 유통이 가능한 전용 건조·저장 시설을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보완함으로써 품질의 균일화를 통한 수요업체와의 대응력을 강화

○ 미래세대와 지역주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밀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학교)급식과 공공기관 이용을 활성화

○ 지역의 밀 산업 육성과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가공·유통 및 판매·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유통개선 및 소비촉진 실행방안을 마련

○ 핵심과제

- 지역 거점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개보수
- 공공(학교)급식, 공공기관 이용 활성화
- 학교급식 '우리밀 먹는 날' 지정 운영
- 지역 밀 산업 유통·소비 실태조사 연구

(4) 소비영역 다각화 촉진 [소비·교류]

○ 생활방식 변화와 먹거리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소비영역의 다변화 전략을 추진

○ 지속가능한 소비처 발굴을 위한 홍보·마케팅에 집중하고, 다양한 형태의 판매와 구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활동을 지원

○ 국산 밀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 생산자(농촌)-소비자(도시)가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의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건강·안전한 먹거리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핵심과제

- 우리밀 소비촉진 홍보·마케팅 확대
- 우리밀 사용업소 인증제도 확대 운영
- 우리밀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
- 우리밀 로컬푸드 청년창업 지원
- 우리밀 6차산업 활성화 지원

(5) 지역협력 체계 구축 [거버넌스]

○ 전라북도의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대한 '지역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밀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거버넌스 기반의 역량강화가 핵심적인 과제임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밀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 등을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역 밀 산업의 안정적인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하고, 수입밀과의 가격차이 극복과 계약재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조직-수요업체-소비자단체-지자체 간 협약사업 추진

○ 지역의 농식품·농생명 기관과 협력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밀 산업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작동체계로서 광역협업조직을 육성

○ 핵심과제

- 전라북도 밀 산업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우리밀 지역 생산-가공-소비 촉진을 위한 협약사업
- 농식품·농생명 혁신기관 협력사업
- 전라북도 우리밀협동조합 육성

4. 정책과제

1) 고품질 생산역량 강화 [생산·품질]

(1)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50%(50개소)를 생산단지로 지정하여 고품질 밀 전문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

❍ 자급률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균일한 품질의 고급화 전략이 핵심으로 이를 담당한 생산조직 육성과 역량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추진방안

❍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품질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기존의 지원사업에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추진

❍ 품종을 단일화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일관된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조직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산 밀 생산단지 시범사업(2020년), 현재 추진 중인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경영체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집단화된 농지(10ha 이상), 단일 품종(금강·조경), 경영체(15인 이상)

❍ 지원규모 : 개소당 30백만원(국비 50%·지방비 40%·자부담 10%)

❍ 지원내용 : 생산단지 중심의 고품질 생산과 조직 역량 강화 지원

- 현장지원단(농촌진흥청·컨설팅기관 등)을 통한 심층컨설팅 지원 :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재배기술 지원 및 품질관리 강화
- 토양분석, 종자순도 분석, 포장검사 등 체계적인 지원
- 품질검사기기(NMR) 구입비 일부 지원 : 생산·저장·유통 과정에 대한 신속·정확한 성분검사 기여

(2) 친환경 밀 특화단지 육성

□ 목적 및 필요성

○ 정부의 국산 밀 비축계획에 따르면 친환경인증 밀을 2021년 2천톤(전체 비축량의 20%)에서 2025년 6천톤까지 확대해갈 예정

○ 정부는 친환경인증 밀 비축을 통해 차별화된 소비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농가 참여를 유인하고 있음

□ 추진방안

○ 도내 친환경인증은 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이모작 작부체계 전환을 유도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계획과 연계 추진

- 친환경인증 밀 수요업체 계약재배 물량에 대한 무이자 융자 우선 지원
-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인증 밀, 국산 밀 활용 가공 밀가루 및 제품에 대하여 제분·유통비용 차등지원(혼합비율 적용)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벼 재배단지의 생산자조직, 농협 등

○ 지원내용 : 밀을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

- 밀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파종기·범용콤바인 등 기계·장비 지원
- 인근 지역의 생산조직과 연계를 통한 건조·저장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등

(3) 밀-콩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논벼의 후작으로 주로 재배되고 있지만 타작물 재배를 통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어 이모작 작부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경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전라북도는 집단화된 공동생산체계를 갖춘 논콩재배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밀-콩을 연계한 이목작 작부체계 구축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추진방안

❍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콩재배단지와 연계하여 전문화된 밀-콩 이모작 생산체계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

❍ 작부체계 개선에 따른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참여를 장려하고,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

▢ 주요내용

❍ 논콩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이모작 작부체계 도입을 위한 농자재 구입 등 생산비, 농기계·장비 등 지원

❍ 논활용직불금 가중 지원 : 밀-콩 등 자급취약 식량작물의 이모작 농가 대상

- 정부는 기존 과잉생산 품목에서 밀로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단가 차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4)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및 공급 확대

▢ 목적 및 필요성

❍ 우량종자는 생산단계에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업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성공요소로 작용

❍ 매년 보급종 부족으로 농가에서 자가채종 종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혼종, 이곡혼입 등으로 순도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

▢ 추진방안

❍ 정부의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생산단지 농가대상 지원 추진

❍ 채종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생산조직의 경우 생산자재 구입비 및 품질관리 비용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품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채종포 운영계획과 사업비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에 대한 순도검사가 가능한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검사를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이 필요

□ 주요내용

○ 정부 보급종 확보 및 공급 지원

- 지원대상 : 생산단지사업 참여 농가
- 정부보급종(금강·조경·백강·새금강)에 대한 공급비용의 50%를 할인하여 공급

○ 우리밀 우량채종포 운영지원

- 지원대상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경영체[23)]
- 종자·육묘, 비료·농약 구입 등 채종포 운영에 소용되는 생산비 지원
-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포장·종자 검사비, 종자관리사 운영비 등 지원

2) 지역 식품가공 활성화 [가공·상품화]

(1) 고부가가치 상품화 연구개발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도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현재 직면해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50.0%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은미 외, 2020)에서 실시한 국산 밀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가격(56.9%)에 이어 품목의 다양성(60.4)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소비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제기됨

23) 집단화된 농지 10ha 이상, 단일품종(금강, 조경)을 재배하는 1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 추진방안

❍ 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이고, 매력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화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을 지원

❍ 지역의 생산단지와 연계하여 시장성을 갖춘 제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농식품 혁신기관과 연계를 통한 연구지원 활동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밀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내 가공업체, 소규모 농가공업체 등

❍ 지원내역 : 연구개발 및 홍보비 지원

- 새로운 제품·메뉴 개발 및 상품화 연구비 지원,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특화제품 연구개발 등 지원
- 상표개발 및 포장재 제작,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2) 우리밀 가공 활성화 시설기반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에서 생산된 밀 제품의 다양성과 고품질화, 다양한 판매채널과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는 식품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추진방안

❍ HACCP 인증시설은 공공(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경영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

❍ 중대형 제분·가공 시설의 경우 밀의 자급기반과 소비시장의 성장규모, 관련 산업의 발전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가칭)전라북도 밀 산업 발전협의체'의 검토를 통해 도입의 필요성과 시기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 주요내용

○ 우리밀 가공시설 및 HACCP 인증시설 구축 지원

○ 중대형 제분 및 가공 시설 1개소 구축 (장기과제 검토)

- 지역의 생산조직, 관련 조직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방식
- '(가칭)전라북도 우리밀협동조합'의 중장기 대응사업으로 추진 고려

(3) 밀 식품가공 전문인력 육성

▢ 목적 및 필요성

○ 밀을 이용한 제과·제빵 등 고품질의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력이 요구되지만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

○ 국산 밀의 경우 수입산 밀에 비해 가공적성이 불규칙적이어서 가공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상품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까지 오랜 경험이 요구됨

○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품질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이 필요

▢ 추진방안

○ 도내 우리밀 업체 종사자 및 예비 취업·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제조·가공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현장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밀 가공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가공 및 관리 역량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도내 대학(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의 조리 및 외식산업 등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특화산업 연계로 산업화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밀가공식품산업 종사자 교육비 지원 (일부 자부담)

○ 지원내용 : 식품업체 품질관리 실무능력 향상, 국산밀 제조 및 가공 기술, 원료 구매 및 재고 관리,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

(4) 우리밀 지역특화산업 육성

□ 목적 및 필요성

○ 밀이 단순한 먹거리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지닌 지역의 문화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최근의 사례들은 지역단위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거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음(천안호도과자, 군산짬뽕 라면)

□ 추진방안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밀 산업 모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

○ 밀 산업 활성화 사례들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만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실행력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의 밀 가공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역별 특화제품 개발 및 산업화 지원역량을 강화

□ 주요내용

○ 생산~가공~소비 연계를 통한 협력산업, 특화거리 조성, 상품개발 및 판매체계 구축, 거점형 6차산업화 비즈니스 모델 등 지원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S/W 중심의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지원, 공모사업방식을 통해 시·군 자율사업으로 추진

(5) 지역 맞춤형 특화품종 생산단지 및 식품가공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고부가가치 창출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품종 개발 및 실증을 통한 확산 방안이 필요

○ 밀 산업의 특성상 식품가공 용도별 품종 선택 및 단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추진방안

○ 새로운 고부가가치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용도에 맞는 맞춤형 지역적응 품종 생산단지를 조성, 블렌딩 기술을 활용한 품질이 높은 수익모델을 개발·보급

○ 농촌진흥청의 '밀 용도별 맞춤형 생산 및 블렌딩 단지 조성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 고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밀 재배 주산단지, 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 등(개소당 50ha)

○ 지원내용 :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생력 농기계·농자재, 밀 품질 분석기, 원맥 블렌딩 및 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지원

3) 안정적 유통기반 확대 [유통·급식]

(1) 지역 거점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목적 및 필요성

○ 밀 산업의 특성상 전용 건조·저장 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

○ 장기적으로 인근 생산단지와 연계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 내 거점시설로 발전할 수 있는 전용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

▢ 추진방안

○ 밀의 통합 건조 및 보관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품질의 균일화를 통한 수요업체의 대응력을 강화

○ 기존 시설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화 정도에 따른 개보수를 진행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생산단지 경영체

- 부지 및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생산단지 거점 역할 수행 능력(인근지역 유사성격

의 시설유무 등) 등 고려

❍ 신축지원 : 품종별로 용도를 구분하여 저장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건조·교반·저온 기능을 갖춘 전문시설로 설계하여 운영 (1,000~2,000톤 규모, 2021~2024년 4개소 정부지원계획)

❍ 개보수지원 : 건조·방수·저장 기능을 중심으로 지원

(2) 공공(학교)급식, 공공기관 이용 활성화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필요

❍ 국산 밀 제품을 사용하는 초등학교 급식과 달리 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의 사용량이 매우 적어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확대가 요구됨

❍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전라북도 및 시·군의 공공조달 체계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활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지원 규정을 마련(조례 제정, 또는 개정)

❍ 지역사회의 기업·기관·단체 등의 구매력을 높여 밀 제품에 대한 민간시장 수요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추진

❍ 학교·공공급식 영역에 먹거리를 공급하고, 식생활 및 영양·위생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전라북도는 전 시·군에서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 영역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도내 15개소(전주시 완산구·덕진구, 13개 시·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식생활관리, 영양·위생관리, 순회방문 교육·컨설팅 등 급식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배균기 외, 2020)

▢ 주요내용

❍ 전라북도 밀 생산 및 가공 제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조례 제정

- 신규 재정 : 우선구매 대상비율, 수혜조직 의무사항, 관련 법령 관계, 구매지원 기제 관련 사항 등 마련
- 조례 개정 :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에 공공기관·학교·기업 등 단체급식시설의 사용 장려 및 우선구매 등 관련 내용을 포함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밀가루 및 가공제품에 대하여 제분·유통비용 지원

- 정부에서 2022년 추진계획인 '국산 밀 제분·활용 생산비 지원(안)' 실행에 앞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추진(친환경인증·국산밀 활동비율에 따른 차등지원 예정)
- 지역에서 생산된 밀 가공제품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거나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 학교·공공급식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추진

- 도내 각 시·군에 구축되어 있는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와 지역가공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식재료 납품계약 추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식단에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

(3) 학교급식 '우리밀 먹는 날' 지정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미래세대가 지역에서 생산된 밀과 제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잠재적인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산 밀의 가치와 인식을 개선

▢ 추진방안

❍ 전라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우리밀 먹는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밀 소비촉진(간식)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

▢ 주요내용

❍ 학교급식에 ‘우리밀 먹는 날’을 지정(월 1회)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업무협약(MOU) 체결 및 이행
- 지역에서 생산한 통밀쌀, 가공식품, 간식류 등 제공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연계 운영

❍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확대 운영

- 시·군 범위 확대 : 현재 9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
- 지원대상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대상에서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

(4) 지역 밀 산업 유통·소비 실태조사 연구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로 원활한 수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 필요

❍ 전라북도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 기본인 밀 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

▢ 추진방안

❍ 도내 밀 산업 관련 연구 기관 및 조직 등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연계하는 지역특화 방안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

▢ 주요내용

❍ 전북에서 생산된 밀의 가공·유통 및 판매·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유통개선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도외로 유통시키는 전략과 도내 소비기반을 확대시키는 전략의 세부추진 방안 제시 등

4) 소비영역 다각화 촉진 [교류·마케팅]

(1) 우리밀 소비촉진 홍보·마케팅 확대

▢ 목적 및 필요성

○ 일반적으로 국산 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신뢰성은 높은 편이지만 새로운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 일반 소비자들에게 국산 밀의 우수성과 차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존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안이 필요

▢ 추진방안

○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산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와 구매처, 구매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

○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추진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유하며, 소통해가는 지역사회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 주요내용

○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구매방법에 매체 광고 및 온라인 홍보 추진

○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사업연계 추진

○ 우리밀을 활용한 음식만들기 및 가공식품(신메뉴) 개발 경진대회 개최

(2) 우리밀 사용업소 인증제도 확대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밀 인증업체로 전국 6개소(경기4, 광주1 전남1 : 음식점5, 제빵점1)가 지정되어 있지만 전북지역은 전무한 상황으로 활성화 방안 필요

○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사용하는 업소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인증제도를 도입

▢ 추진방안

○ 민간 주관(국산밀산업협회) ‘우리밀 사용업소 인증제도’ 홍보 및 활성화 지원

○ 전라북도 자체인증 ‘우리밀 로컬푸드 인증제도’ 도입으로 지역소비 견인

○ 2023년 추진계획인 ‘음식점 및 원산지표시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인증업체(포장재, 제품개발비, 홍보비, 필요장비 등), 공급업체(물류비 등)

▢ 주요내용

○ ‘우리밀 사용업소 인증제도’ 활성화 : 국산밀 100% 사용, 인증기간 1년, (신청) 협회소속 밀공급사·사용업소 ⇒ (인증서) 협회 ⇒ (사후관리)밀공급사 분기보고

○ ‘전라북도 우리밀 로컬푸드 인증제도’ 도입 : 세부기준(안) 및 인센티브 논의 필요, 사용업체 인증 간판 등 상징물 제작 등 지원

(3) 우리밀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밀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회적 가치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다양한 세대별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밥상문화를 지원하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추진방안

○ 미래세대·성인·군인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 푸드플랜, 로컬푸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실행력 제고

▢ 주요내용

○ 우리밀의 특성과 종자에서 최종 소비되는 과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리밀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

- 학교급식, 커뮤니티 키친, 공유부엌 등을 통해 활성화 되도록 교육비 지원

○ 도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밀 식생활교육과 연계한 ‘우리밀 투어(현장탐방)’,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전라북도-시·군-교육청이 교육비를 분담하여 운영 (업무협약 체결)

(4) 우리밀 로컬푸드 청년창업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 식재료인 우리밀 사용에 대한 가치함양과 함께 로컬푸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사업화 지원 필요

○ 우리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 및 소비 확대를 통해 밀 산업 활성화 도모

□ 추진방안

○ 공모선발을 통해 창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 제공 및 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유사사례 : 청년키움식당)

○ 사업계획서·추천서 등 서류심사를 진행, 메뉴 품평회를 통해 선발된 팀이 우리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사업·제품 기획, 가공, 판매, 서비스 등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우리밀 로컬푸드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의 청년과 대학생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2억원 한도의 70%지원(자부담 30%), 홍보비 지원, 멘토링

○ 지원내용 : 사업장(창업공간)지원, 주방기구 및 비품지원, 임차료 연 6천만원 이내 지원

(5) 우리밀 6차산업 활성화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밀 산업 활성화와 지역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밀을 만나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접점이 필요

○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서는 단절적인 생산과 구매/방식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중요

□ 추진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활용한 가공과 체험 등 6차산업 기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

○ 지역의 생산자-소비자의 상시적인 교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

□ 주요내용

○ 밀을 활용한 가공·체험·교육 공간, 농가·마을 레스토랑, 홍보관 등 조성 지원

○ 밀을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콘텐츠 제작 등 지원

- 제과·제빵·요리 체험, 팸투어 프로그램, 마을·지역 축제, 체험키트 제작 등

○ 6차산업 인증 및 경영 컨설팅 지원

5) 지역협력 체계 구축 [거버넌스]

(1) 전라북도 밀 산업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밀 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 등 전 과정에 대한 일상적이고, 긴밀한 논의의 장이 필요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밀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 등을 주도하는 협의체 필요

○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우리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 추진방안

○ 지역의 밀 생산조직, 수요업체(가공·유통), 소비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전라북도 밀 산업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련 조례의 심의·자문 기능을 넘어 지역의 밀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와 정책의 실행구조를 만들어가는 민·관 거버넌스로서의 기능을 설정

□ 주요내용

○ '(가칭)전라북도 밀 산업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 운영비용 지원

(2) 우리밀 지역 생산-가공-소비 촉진을 위한 협약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밀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조직, 수요업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수입밀과의 가격차이를 극복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활용한 제품의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유도

○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체계를 마련

□ 추진방안

○ 생산조직-수요업체-소비자단체-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업무협약(MOU) 체결

○ 지역에서 생산된 밀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약사업으로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협약이행과 원맥구입 차액지원 등 추진

□ 주요내용

○ 우리밀 지역 생산-가공-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이행

- 생산조직 : 생산관리, 건조·저장, 품질관리, 조직관리 등
- 제분업체 : 계약재배 물량 구입, 1차 가공(제분)
- 가공업체·외식업체 : 제분업체의 물량 구입, 2차 가공(제조)
- 소비자단체 : 계약이행 모니터링, 제품 홍보 및 소비 장려

- 지자체 : 우량종자 보급,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관리 지원, 차액지원

○ 업무협약 이행에 따른 원맥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통밀 수요업체, 제분업체, 가공업체, 외식업체 등

○ 원맥 구입비 지원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협약이행 모니터링

- 논의과정 필요(발전협의체) : 지원단가, 관리방안 등
- 단계적 확산 : 학교급식, 제과점, 식당, 기업체 등 차액지원

(3) 농식품·농생명 혁신기관 협력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농식품·농생명 혁신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밀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

□ 추진방안

○ 밀 산업 발전을 위한 도내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MOU 등) 및 실행방안 마련

○ 혁신기관 간 관련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사업·워크숍 등을 통해 성과를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추진

□ 주요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 상품화 및 패키징 등 관련 장비·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 농촌진흥청 : 지역 생산단지 맞춤형 용도별 특화품종 개발 및 실증 등

○ 한국식품연구원 : 건조·저장 품질관리, 식품산업화, 제품개발, 기능성 연구 등

○ 혁신도시 공공기관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4) 전라북도 우리밀협동조합 육성

□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의 밀 산업은 생산을 제외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유통·소비 등의 영역에서 외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음

○ 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대규모 식품업체·가공업체·유통업체 등에 대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차원의 협력을 기반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작동체계 구축이 요구됨

□ 추진방안 (장기과제)

○ 지역의 밀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생산조직(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지역농협·작목반 등)과 소비조직(생협 등)의 재조직화를 추진

○ 밀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써 '(가칭)전라북도 우리밀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육성, 초기 사업기반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밀 산업의 지역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외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의 생산력·가공력·소비력을 강화시켜가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가칭)전라북도 우리밀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 직접사업 : 제분공장, 제과점, 레스토랑, 디저트카페, 직매장 등 운영

-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테마로 한 융복합 사업지구를 조성
- 국산밀 중심의 전문적인 가공·체험 관광단지로 조성
- 제분공장과 가공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가공력을 강화

○ 연계사업 : 외부 로컬푸드 직매장, 외식업체, 제과점 등 연계체계 구축

6 장

요약 및 제언

Jeonbuk Institute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제6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 요약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밀은 제2의 주식으로 불릴 만큼 국민의 식생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0.7%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정부는 자급률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밀 산업 육성법」을 제정(2019.8.27.)하고, '제1차 밀 산업 기본계획('21~'25)'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전북은 전국 2위의 주요 산지임에도 불고하고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발전가능성과 시장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의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관점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지속가능한 밀 산업의 육성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국내 밀 산업의 여건분석

❍ 세계적으로 밀 생산량·소비량은 증가 추세이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수입에 의존해온 우리나라의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국내 수급현황은 전체 밀 공급량 중 수입이 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로 인한 제고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임

-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7% 수준에 불과하며, 수입산이 3.0배 정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어 국산 밀 산업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최근 5년(2015~2019) 동안의 평균 재배면적은 8,027ha로 연간 생산량은 약 28,675톤 규모로 추산되며, 10당 단위 생산량은 약 366kg 정도임

- 국내 재배면적·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11년에는 13,044ha에서 13,044톤을 생산하였으나 2019년 현재 3,736ha, 15,024톤 수준까지 하락

❍ 국내 밀 산업은 생산·구매 부문에서 주요 5개 사업체의 비중 높고, 주요

산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곡을 확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정은미 외, 2020)

- 1차 가공(제분) 제품(밀가루)을 직접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한 2차 가공(제품)을 통해 면류·제빵·제과 등으로 상품화하여 최종 판매하는 구조임
- 주요 판매처는 인터넷 쇼핑몰, 생협, 학교급식, 마트, 제분협회 등이며, 지역과 업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급식 분야나 특정 가공업체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소비현황은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약 32.4kg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1.2kg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용도별 수요는 면류(25.4%), 빵류(19.0%), 과자류(15.7%) 순이며, 국산 밀은 면류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용률은 4.6%에 불과한 수준으로 가격과 가공적성에 대한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임
- 소비자들은 국산 밀에 대하여 가격·구매 접근성, 제품 다양성 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9년 8월 「밀 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밀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전국의 5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2022)'에 이어 2020년 말에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발표하였음

○ 현재까지 정부정책은 밭농업직불제와 생산단지 중심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생산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육성된 품종은 약 40여개로 금강·조경·백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 국수용(76.7%)으로 중력분 중심의 다목적 용도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음

□ 전라북도 밀 산업 현황

○ 최근 5년간 연평균 재배면적은 1,803ha(전국의 22.5%), 생산량은 7,140톤(24.9%)이며, 10당 생산량은 전국 최고 수준인 405kg(전국평균의 1.11배)

○ 전라북도 자체 조사결과 2019년 기준 도내 밀 재배 농가수는 약 1,022호, 재배면적은 2,033ha, 생산량은 8,633.6톤으로 파악됨

- 종자 수요량은 최근 5년 연평균 171.6톤으로 공급량은 47.6% 수준에 불과
- 건조시설의 경우 7개 조직에서 47개, 저장시설(사일로)은 6개 조직에서 29개

(12,100톤), 제분시설은 4개 조직, 도정시설은 3개 조직에서 구축하고 있음

○ 7개 시·군에 16개의 생산조직이 구성·운영 중이며, 원료곡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소비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연계 등을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도내의 식품기업은 약 68개소가 존재하며, 완주군과 전주시의 비중이 각각 25.0%(17개소), 17.6%(12개소)로 높은 편임

- 2019년 구입물량(31,359톤) 중 수입산은 60.4%이며, 도내산은 12.9%에 불과
- 구입액(1,126억원) 중 도내산은 20.2%에 불과, 타시도(43.8%), 수입산(36.0%)
- 애로사항으로는 판로 개척(마케팅 등), 자금 확보(시설확충 등), 상품 개발, 인력 확보 등이며, 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0.2.28.)하였으며, 전주시와 부안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한편 전라북도에서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등이 대표적임

□ **밀 관련 활성화 사례**

○ 로컬푸드·창업지원,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지역특화산업 등 3개 영역으로 유형화하고, 운영현황·문제인식·대응과제의 관점에서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운영현황) 지역의 생산조직을 통해 원재료를 수급하고 있으며, 생산단계에서 품질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지도 등 요청

- 주로 로컬푸드직매장과 유통·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거래와 카페·교육·가공·체험 등의 영역으로 사업분야를 다각화하고 있음
- 주요 고객층은 안전·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계층이며, 품종별 저장·가공 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력을 높이고, 가공특성을 고려한 제분·가공을 중요하게 인식

○ (문제인식) 수입산에 비해 비싼 가격과 미흡한 품질균일화를 문제점으로 지적

- 국산밀 제조·가공 전문가 부족, 관련 주체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미흡, 홍보 부족, 제품의 다양성 미흡, 짧은 유통기한 등을 어려움으로 인식
- 소비자 인식, 공공급식 분야 진출을 위한 시설·인증, 생산자·소비자 접근성, 창업 지원, 제품·메뉴 개발, 정보제공(정책·교육, 제품·구매방법 등) 등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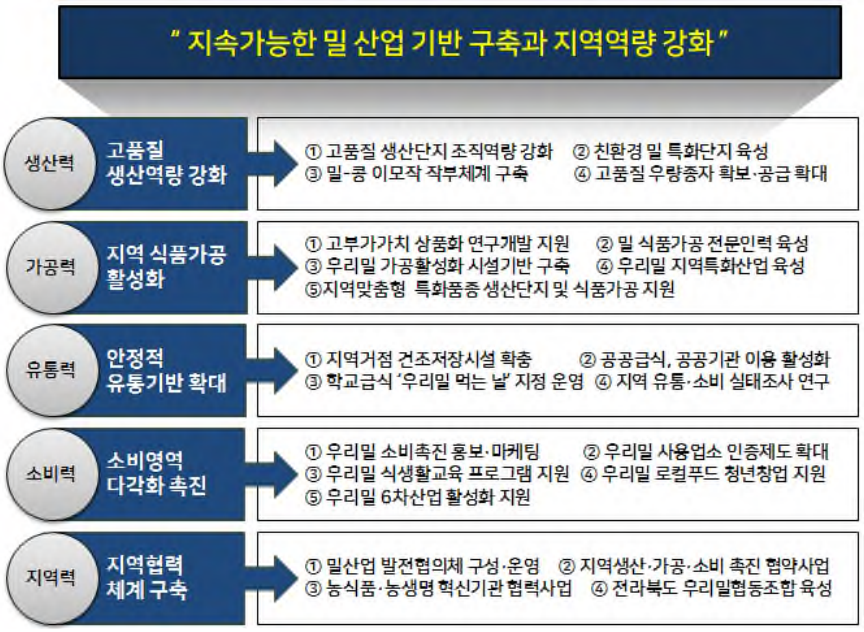
○ (대응과제) 수입밀과의 가격차이 극복, 소비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대응

- 가공분야 활성화를 위한 장비·설비, 전문인력 육성, 제품의 다양화와 창업 및 메뉴 개발, 지역특화제품 개발을 통한 고급화 전략과 HMR 시장진입 등 지원
- 소비자 인식개선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공공급식 및 지역축제 등 관련 사업 연계, 다양한 주체들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 계약재배 활성화, 정부수매제 시행에 따른 후속관리, 품종개발과 용도별 순도 높은 종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체계 구축, 전용 저장·가공 시설 지원 등

▢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밀 산업 기반 구축과 지역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생산력·가공력·유통력·소비력·지역력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

- 지역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여건에 대하여 정부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고품질 생산역량 강화, 지역 식품가공 활성화, 안정적 유통기반 확대, 소비영역 다각화 촉진, 지역협력 체계 구축 등 5대 영역에 대한 22개 정책과제를 제시



❍ 고품질 생산역량 강화 [생산·품질]

- 고품질의 생산을 위해 종자부터 재배의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
- 단지화·조직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가는 전략 추진
- 용도별 품종선택과 품질 균일화·표준화를 위한 우량종자의 확보·보급 체계 구축
- 지역의 강점을 살려 이모작 작부체계의 선도적인 확산 모델과 생산체계를 구축

❍ 지역 식품가공 활성화 [가공·상품화]

- 1차 가공(제분) 등 외부에 의존해왔던 지역의 가공기반 확충 및 역량을 강화
- 생산조직과 농식품업체, 판매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지원
-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별 품종과 가공기술을 연계한 수익성 모델 개발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 제품 다양성과 품질, 수요처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 안정적 유통기반 확대 [유통·급식]

- 전용 건조·저장 시설 확보 및 개보수로 품질의 균일화를 통한 대응력 강화
- 밀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학교)급식과 공공기관 이용을 활성화
- 가공·유통 및 판매·소비 패턴 분석, 유통개선 및 소비촉진 실행방안을 마련

❍ 소비영역 다각화 촉진 [소비·교류]

- 생활방식 변화와 먹거리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소비영역의 다변화 전략 추진
- 지속가능한 소비처 발굴 및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마케팅 집중 지원
- 다양한 형태의 제품 판매와 구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활동 지원
-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운동으로 확산
- 생산자(농촌)-소비자(도시)가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의 교류 활동을 활성화
-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건강·안전한 먹거리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역협력 체계 구축 [거버넌스]

- 가치사슬 전 과정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밀 산업을 육성
-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과 거버넌스 기반의 역량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밀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 등을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도모
- 수입밀과의 가격차이 극복과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주체 간 협약사업 추진
- 지역기반 농식품·농생명 기관과 협력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강화

〈표 6-1〉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정책과제 요약

추진전략	핵심과제	
고품질 생산 역량 강화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생산단지 중심의 고품질 생산과 조직역량 강화 지원
	친환경 밀 특화단지 육성	밀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계·장비 및 품질관리 지원
	밀-콩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	이모작 작부체계 직불금 가중 지원, 농자재·농기계·장비 등 지원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및 공급 확대	정부 보급종 확보 및 공급 지원, 우리밀 우량채종포 운영지원
지역 식품 가공 활성화	고부가가치 상품화 연구개발 지원	신제품·메뉴 개발 및 상품화 연구, 혁신기관 연계 지역특화제품 연구개발 등 지원
	지역 맞춤형 특화품종 생산단지 및 식품가공 지원	가공시설 및 HACCP 인증시설 구축 지원, 중대형 제분 및 가공 시설 1개소 구축 (장기과제)
	밀 식품가공 전문인력 육성	품질관리 실무능력 향상, 국산밀 제조·가공 기술, 원료 구매·재고 관리, 마케팅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
	우리밀 지역특화산업 육성	S/W 중심의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우리밀 가공 활성화 시설기반 구축	전문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생력 농기계·농자재, 품질분석기, 원맥 블렌딩 및 가공 시설 등 지원
안정적 유통 기반 확대	지역 거점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개보수	품종별 용도구분 저장·유통 전문시설(정부지원계획) 신축, 개보수 지원(건조·방수·저장 기능 중심)
	공공(학교)급식, 공공기관 이용 활성화	전라북도 밀 생산 및 가공 제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조례 제정,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밀가루 및 가공제품에 대하여 제분·유통비용 지원, 학교·공공급식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추진
	학교급식 '우리밀 먹는 날' 지정 운영	학교급식에 '우리밀 먹는 날'을 지정(월 1회) 운영, 우리밀 간식 지원사업 확대 운영
	지역 밀 산업 유통·소비 실태조사 연구	지역 가공·유통 및 판매·소비 패턴 분석, 유통개선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소비 영역 다각화 촉진	우리밀 소비촉진 홍보·마케팅 확대	지역생산 제품·구매방법 매체 광고 및 온라인 홍보, 우리밀 소비촉진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사업연계 추진, 우리밀을 활용한 음식만들기 및 가공식품(신메뉴) 개발 경진대회 개최 등
	우리밀 사용업소 인증제도 확대 운영	'우리밀 사용업소 인증제도' 활성화, '전라북도 우리밀 로컬푸드 인증제도' 도입
	우리밀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우리밀 식생활교육, 우리밀투어(현장탐방),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우리밀 로컬푸드 청년창업 지원	사업장(창업공간)지원, 주방기구 및 비품지원, 임차료 연 6천만원 이내 지원
	우리밀 6차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체험·교육공간, 농가·마을 레스토랑, 홍보관 등 조성 /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콘텐츠 제작 / 제과·제빵·요리체험, 팸투어, 마을·지역축제, 체험키트 제작 / 6차산업 인증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원
지역 협력 체계 구축	전라북도 밀 산업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칭)전라북도 밀 산업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 운영비용 지원
	우리밀 지역 생산-가공-소비 촉진을 위한 협약사업	지역 생산-가공-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이행, 업무협약 이행에 따른 원맥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 원맥 구입비 지원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협약이행 모니터링
	농식품·농생명 혁신기관 협력사업	농식품·농생명 혁신기관 연계 협력사업 추진, 지역의 밀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체계 구축
	전라북도 우리밀협동조합 육성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가칭)전라북도 우리밀협동조합' 구성·운영, 직접사업(제분공장, 제과점, 레스토랑, 디저트카페, 직매장 등) 및 연계사업(로컬푸드 직매장, 외식업체, 제과점 등) 추진

2. 정책 제언

▢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 전라북도의 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치사슬 전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안이 요구됨
- ❍ 생산영역의 경우 조직화를 통해 기반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가공·소비 영역을 개선하는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수입밀과의 가격차이를 극복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 전라북도는 로컬푸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으로써 지금까지 수입밀이 차지해왔던 밥상의 구조를 국산밀로 전환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이 필요함
- ❍ 이를 위해 생산조직, 제분·가공업체, 소비자,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응해가는 전략이 요구됨

▢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

- ❍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으로 제안한 5대 영역의 22개 정책과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 ❍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 지역자원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가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 ❍ 정부의 자급기반 확충과 소비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자원과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가는 대응 전략이 필요함

▢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정책과 연계 추진

❍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식량안보에 필요한 쌀 이외 소비 비중이 큰 밀의 자급률 제고 방안이 주요한 과제로 다뤄짐에 따라 관련 정책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임

❍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등과 연계하여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고, 공공급식 등 관련분야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가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천식·정영근·김보경(2016), 국산 밀 산업현황과 전망, 한국심품영양과학회, 『식품산업과 영양』, 21(2); 20-24

경향신문(2016.5.31), '강동오케익 지역 및 사회를 향한 남다른 행보'에서 작성

국립식량과학원(2010), 국산 밀 품잘향상을 위한 우수품종 종자 생산단지 조성

국립식량과학원(2012a), 국산밀 자급률 10%달성을 위한 소비자 인식 연구

국립식량과학원(2012b), 고품질 국내산 밀 재배기술 및 시범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

국립식량과학원(2016), FTA이후 국산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도별 품질 균일도 증진 연구

권승구·김영복·김동완(2016), 지역생산·지역소비 전략의 국산밀 생산자조직 및 사업체의 현재와 발전과제, 대산농촌재단, 『농업실용연구총서』 7집

김상숙·정혜영(2014), 시판 중인 우리밀 및 수입밀 밀가루의 품질 및 특성 비교 분석,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7(2); 287-293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

농림축산식품부(2018),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202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11.1.), "수미 선생님도 강력 추천! 톡톡 터지는 통밀밥먹고, 열공 하세요!" - '국산 통밀 학교급식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2020.11), 국내 밀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11.19.),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2016), 천안 호두과자 맛의 비밀을 아십니까?

농촌진흥청(2020),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안)

배균기·서환석·이병훈(2020), 전라북도 공공급식 현황분석과 광역지원조직 기본구상 연구, 전북연구원

양홍교(2016), 우리밀, 중국밀과 수입미의 품질 특성 비교,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재)지역재단(2011), 국산밀 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국산밀 품종별·용도별 품질 균일화를 위한 품질 기준 재설정 연구

정은미, 이두영, 김태환, 박은지, 송동흠(2020), 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9권 제6호(2020.12.03.)
농림축산식품부(2020), 국내 밀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

강동오케익	http://gdocake.com/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립식량과학원	https://www.nics.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사)국산밀협회	http://www.koreawheat.or.kr/
우리밀세상을여는사업들	http://www.wheatworld.or.kr/

정책연구 2020-22

전라북도 밀 산업 육성 방안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13-1 935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비매품/무료
93520
ISBN 978-89-6612-313-1